

형태론

형태론이란 무엇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형태론이란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단어들이 실현되는 여러 형태들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단어들 간의 관계에 따른 형태의 변화나 새로운 단어의 형성 등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를 전통적으로 형태론이라 한다. 여러 학자들이 형태론에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weet

활용, 합성, 파생 등의 각 문법범주의 형태 변화, 단어들의 순서, 품사 등을 연구하는 분야

Jespersen

문법기능을 맡은 단어들, 즉 접사, 문법 형태소, 또는 단어들의 순서 등을 연구하는 분야

Martinet

moneme의 형태 변화, 즉 allomorph의 연구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언어의 형태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형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 단위(형태소)가 현실 언어에서 나타는 소리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라고 말할 때 그 말소리 자체가 하나하나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거나 연결될 때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르는 명사, 대명사, 수사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떤 기능으로 어떤 위치에 쓰이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하게 된다. ‘파랗다, 파랗고, 파란, 파래서’ 등등으로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게 된다. 우리가 문법에서 흔히 말해온 용언의 활용은 형태론의 연구 분야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형태론은 단어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하나의 단어는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 요소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형태론의 연구 분야이다. ‘떡볶이’라는 하나의 단어는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각 형태소는 어떤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인지, 이러한 형태소의 결합으로 그 단어는 어떠한 기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두 형태론에서 연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완전굴절법이라 하고,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것을 준굴절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형태론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형태소에서 출발하여 단어, 어절까지의 단위를 다룬다고 할 수 있으며, 단어 나 어절을 넘어서서 어구나 문장에 대한 내용은 형태론 연구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형태소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국어학이란 국어의 언어 현상을 파악하고 그 현상을 정리하여 언어 현상을 해석하는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의미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는 어떻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우리의 한국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미와 관련하여 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갖는 최소의 요소로 더 이상 분석이 되지 않는 문법 단위가 바로 형태소이다. 결국 형태소는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분석했을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의미와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태소에서부터 그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말이 일정한 의미를 담아내는 것은 일단 그 발화 속에 담긴 형태소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소의 개념을 소개한 사람은 미국의 언어학자 Leonard Bloomfield였다. 그런데 우리 학자 중에서도 이러한 형태소와 유사한 개념에 대해 논의한 일도 있었다. 주시경은 Bloomfield 이전 1914년에 ‘말의 소리’라는 책에서 ‘해바라기’라는 단어는 ‘해, 바라, 기’라는 세 개의 ‘닛씨’로 구성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형태소는 어떻게 분석하나?

－ 형태론이란 단어의 내적 구조를 연구하는 국어학의 한 분야이다. 형태소의 분석과 기능의 파악은 형태론 연구의 기초가 된다. 특히 그 중에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치(代置)’와 ‘결합(結合)’의 원리이다. 예를 들면 ‘잡았다’

와 ‘놀았다’에서 두 단어에서 ‘았다’는 공통적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결국 두 단어의 의미 차이는 각각 ‘잡’과 ‘놀’이라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잡았다’에서 ‘잡’을 ‘놀’로 대치시키면 ‘놀았다’가 되고 의미도 바뀐다. 결국 ‘잡’과 ‘놀’은 모두 ‘았다’와 분리가 가능하고 서로 대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잡’과 ‘놀’은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치의 원리이다. 이 때 대치될 수 있는 ‘잡’과 ‘놀’의 관계를 ‘계열 관계(系列關係:paradigmatic relations)’이라 한다. 또한 ‘길다’와 ‘길었다’를 비교해 보면 ‘길’과 ‘다’는 공통적이지만 ‘었’이 포함되어 있느냐 빠져 있느냐가 서로 다르다. ‘길다’와 ‘길었다’에서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었’은 앞의 ‘잡’과 ‘놀’의 경우와 같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서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는 요소는 대치의 경우와 같이 따로 분석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므로 역시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이러한 형태소 분석 방법이 결합의 원리이며, ‘길’과 ‘다’는 ‘었’과 결합되어 있어서 이러한 형태소들의 관계를 통합 관계(統合關係:syntagmatic relations)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치의 원리로 모든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리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공시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역사적으로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단어들에 대해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생선인 ‘갈치’의 경우 ‘갈’은 중세국어의 ‘갈ᄃᆞ[刀]’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갈ᄃᆞ’이라는 형태소가 쓰이지 않으므로 이 단어를 ‘갈+치’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평아리’의 경우에도 이를 ‘수ᄃᆞ+병아리’로 분석하는 것도 어렵다. 현대국어의 공시론에서 ‘수ᄃᆞ’이라는 형태소가 쓰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형태소 분석이라기보다는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어원적 분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어절 단위에서 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하나의 단어인가?

흔히 학교에서 단어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 어절 단위에서 조사만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단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부분 이러한 설명은 적절하다. 우리말 띄어쓰기 규정이 조사를 제외하고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는 현행의 학교 문법 체계에서는 당연히 조사가 붙는 경우 2개의 단어가 되므로 조사를 제외시키면 하나의 단어만 남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다. 원칙으로 한다는 말 뒤에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조사를 제외하고 띄어 쓴 것이 모두 하나의 단어는 아닐 수도 있다. 한글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항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50항을 보면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 용어는 특정한 학문이나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다. 결국 전문 용어는 몇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종의 합성어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우라면 규정과는 달리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면 문법 시간에 겹문장 관련 부부에서 배우는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이라는 전문용어를 살펴보자. 이 두 용어는 교과서에서도 띄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자체가 전문 용어로 쓰이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사실 사전에서 이 두 단어는 등재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문법 시간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경우 ‘안은, 안긴, 문장’ 각각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이 하나의 단어이므로 이들은 이러한 단어를 이루는 구성요소, 즉 하나의 어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은 문장의 속에 안긴 문장이 있다’라는 문장에서 조사 ‘의’와 ‘이’를 제외한 ‘문장’은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이라는 단어의 일부 어근이다.

접사는 모두 형식형태소인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파생어인가?

일반적으로 형태소의 유형을 나눌 때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고,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또는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로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소 구분에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파생어의 형태소 분석이다. 파생어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이 때 어근은 모두 실질 형태소이다. 그런데 문제는 접사이다. 접사는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이 되는데 과연 형태소의 하위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접두사와 접미사로 이루어진 접사는 용어 자체가 다른 어근에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자립성이 없다. 그러므로 의존 형태소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질 형태소인가 형식 형태소인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 중에는 실질 형태소는 반대로 어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곧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으로 보게 되고, 파생어의 경우에는 합성어와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접사는 모두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접사가 형식 형태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뉘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로 나눌 수 있다. 파생 접사는 단어의 파생 즉 기존의 어근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여 새로운 단어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사를 말하며, 굴절 접사는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는 유지하면서 문법적 기능을 달리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물론 이 경우 굴절 접사는 일반적으로 ‘어미’라고 부르는 것으로 굴절 접사의 결합은 활용에서 다를 뿐 파생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결국 파생어를 다시 정의하면 단순히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 아니라 굴절 접사를 제외한 어근과 파생 접사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은 다시 ‘파생 접사는 모두 형식 형태소인가’라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 문법 교과서에서 파생 접사로 소개된 ‘치-’와 ‘꽃-’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확인해 보자.

▶ 치-15 「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❶치뜨다/치닫다/치받다/치솟다/치읽다.

▶ 꽃-2 「접사」

①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❶꽃감/꽃고추/꽃과실/꽃김치/꽃나물/꽃콩.

②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❶꽃사랑/꽃잠. [←풀+-ㅅ]

위의 두 설명 내용으로 보아 ‘치-’나 ‘꽃-’의 경우에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이기보다는 어휘적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파생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접두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질 형태소와 같이 어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사를 ‘한정 접사(限定接詞)’, ‘가의 접사(加意接詞)’ 또는 ‘어휘 접사(語彙接詞)’라고도 하며 새로운 단어를 하나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문장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형태론적(形態論的) 접사’라고도 한다.

물론 파생 접사의 경우에도 문법적 기능이 강한 것도 있다. ‘먹이, 길이, 높이’ 등에 쓰인 ‘-이’는 용언을 명사화하는 문법적 기능을 갖는 파생 접미사이다. 또한 ‘깊이다, 쌓이다’ 등의 ‘-이-’는 용언을 사동화 또는 피동화 시키는 접미사이다. 이러한 형태소는 품사를 바꾸고 문장의 구조도 바꾸게 되므로 ‘지배 접사(支配接詞)’, ‘통사론적(統辭論的) 접사’라고 한다.

결국 파생 접사를 모두 형식 형태소로 볼 수는 없으며 파생어를 파생 접사와 어근의 결합이 아니라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럴 경우 파생 접사가 형식 형태소가 아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미(굴절 접사)가 형식 형태소에 포함되므로 모든 용언은 파생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파생 접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문법 교과서에서는 접사에 대하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설명만으로 접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뜻을 제한하는”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수식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어서 체언 앞의 관형사나 용언 앞의 부사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말에는 형태가 같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접사가 되기도 하고 단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있어서 접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참사랑, 참숯’의 ‘참-’은 접두사이지만, ‘참을 추구하다’에서 ‘참’은 명사이며, ‘참 경치가 좋다’에서 ‘참’은 부사이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을 해보면 ‘작은아버지(叔父), 늦가을’의 ‘작은’과 ‘늦’은 모두 접두사로 등재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작은아버지’의 경우에는 문법 교과서에서는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의 예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작은’은 접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근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혼란 자체가 접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대체로 파생 접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비자립성과 분포 제한성을 들 수 있다. 비자립성은 홀로 자립적 단어나 어기로 쓰이지 못함을 말한다. 의존 형태소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포 제약성이란 굴절 접사와 달리 파생 접사는 분포상 제약이 있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접사는 결합력에 따라 생산적 접사와 비생산적 접사로 나눌 수 있다. ‘헛돌다, 헛소리, 헛되다’의 ‘헛-’과 같이 여러 단어와 결합하는 파생 접사는 생산적 접사이며, ‘지붕’의 ‘-옹’과 같이 결합 단어에 제약이 많은 경우는 비생산적 접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 명확하게 모든 접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우선 비자립성의 경우 자립한다고 볼 수 있는 ‘공부(를) 하다’, ‘밥(을)하다’, ‘사랑(을)하다’의 ‘-하다’가 접미사라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 분포의 제약성에서도 ‘우리끼리, 우리들’에서 보이는 ‘-끼리’나 ‘-들’이라는 접사는 거의 분포의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미사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접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접사들이 공시적으로는 접사로 분류되지만 통시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대부분 실질적인 어근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결국 현재의 파생어는 대부분 옛날에는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합성어에 해당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공시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의존명사’와 ‘관형사’는 자립형태소인가?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립성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립성이 있다면 홀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홀로 쓰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에서 흔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홀로 쓰일 수 있는가”라는 기준만으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구분할 경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의존명사나 관형사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인 경우 이를 자립 형태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존 형태소로 볼 것인가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조사가 의존 형태소라는 것은 대부분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하고 있다. 조사 혼자서 문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부사 또한 이러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부사 정도는 이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사만으로 문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철수가 어떻게 뛰느냐?”라는 물음에 청자가 “빨리.”라고만 대답할 수 있다. “빨리”만으로도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예문이다. 이러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가로 학교에서 자립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존명사나 관형사의 경우에는 자립성이 있다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떤 문장에서도 의존명사나 관형사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관형사의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립성에서는 조사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관형사를 자립어로 분류하는 것은 어휘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그 용어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의존성 성격, 즉 비자립성이 매우 강하다. 학생들에게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형태소를 구분하도록 시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존명사는 의존 형태소로 분류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존명사 자체는 비자립적이지만 주로 쓰이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자립성을 갖는 명사와 동일한 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명사에 준하여 자립 형태소로 본다.

하나의 형태소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소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기 때문에 형태소를 더 분석하면 결국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형태소의 경우에는 더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이미 대치와 결합의 원리로 형태소를 분석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그러한 원리가 모든 형태소를 분석하는 만능의 방법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의 형태소로 보이는 것도 더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시골내기, 서울내기’ 등에서 보면 접미사 ‘내기’가 분석이 가능한데 이 경우 그 의미가 출신지와 관련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마지막 음절의 ‘기’가 명사 파생 접사의 ‘-기’와 동일한 형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내’와 ‘기’로 분석이 가능하고 ‘내’는 ‘낳-[生]’이나 ‘나-[出]’에서 온 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조사 ‘-부터’의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 ‘붙-[着]’이 어미 ‘-어’와 결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시다’의 경우 중세국어에 ‘있-[有]’를 뜻하는 ‘겨다’가 존재했다는 것을 안다면 ‘-시-’를 다시 분석하여 현재의 주체높임선어말어미로 분석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외에도 실제로 학자들에 따라서 형태소 분석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형태소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어원적 분석에 가깝다. 즉 현대 국어에서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거나 현재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복합어와 합성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단어의 형성 과정에 따라 우리말을 분류하면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다시 복합어가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다. 그리고 복합어 중에는 파생법과 복합법이 반복적으로 쓰여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 복합어와 합성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단일어의 상대적인 개념, 즉 복합어를 합성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과거 국어학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학교 문법에서 복합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를 합성어로 합성어는 복합어라고 지칭한 경우가 없지도 않다. 이는 아마도 합성어의 영어 ‘compound word’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학생들은 복합어는 합성어의 상위 개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생어나 합성어를 복합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파생어를 합성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형태소는 최소한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나?

실제로 학생들은 문장을 어절로, 어절을 단어로,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형태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에 하나의 단어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종종 형태소 하나도 최소한 하나의 단어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우선 굴절 접사인 어미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 못한다. 파생 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이미 중학교에서 배운 접두사와 접미사는 하나의 형태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자체로는 온전한 단어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반드시 하나의 단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품사와 문장성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품사는 주로 형태론에서 다루는 개념이며, 문장성분은 통사론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이 두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품사와 문장성분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아마도 학생들이 영어 시간에 배운 영문법 개념과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문법 시간에는 ‘주어+동사+목적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각각 문장성분과 품사를 나타내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문장성분이란 문장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그러므로 품사는 단어만 제시하고도 그 자체만으로 품사 분류가 가능한 반면에 문장성분은 반드시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 안에서의 문장성분을 물어야만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어의 품사는 어떤 문장에서 쓰이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장성분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문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품사로 변화가 가능하다.

명사 파생 접사와 명사형 어미의 차이점

학생들은 명사 파생 접사나 명사형 어미는 일반적으로 그 기능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명사 파생 접사는 일종의 파생 접사로 파생법에 따라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를 명사로 바꾸는 기능을 하지만 명사형 어미의 경우에는 굴절 접사로서 품사를 어근의 품사를 명사로 바꾸지는 못하고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만을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또한 파생 접사의 경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므로 그 파생어가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실리게 되지만, 전성형 어미인 명사형 어미인 경우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므로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단어는 사전에 올리지 않는다는 차이점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을 구분하는 데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두 가지를 학생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할 수 있는 ‘-기’나 ‘-음’이 같은 형태로 명사형 어미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 둘은 그 형태가 같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형태를 중심으로만 판단하도록 할 경우 구분하기 어렵다. 흔히 이 둘을 서술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사형 어미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사 파생 접사로 구분하도록 하지만 이것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산의 높음과 바다의 깊음”에서 ‘높음’과 ‘깊음’의 ‘-음’은 분명히 명사형 어미이지만 관형격 조사 ‘-의’로 인해 서술성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접사도 품사인가?

일반적으로 문장성분의 경우에는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독립어’ 등과 같이 모두 ‘-어’를 이용하여 용어를 정하고 품사의 경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과 같이 ‘-사’로 그 용어를 적고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접두사와 접미사, 즉 접사는 품사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외적인 특징과 관련해서 접사를 무슨 품사의 하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품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논의의 대상이 단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접사는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이며, 그것도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여야만 단어를 이룰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다. 그러므로 접사 자체만으로는 단어를 이루지 못한다. 결국 접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품사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형태소 분석 퍼즐 이용하기

▶ 개요

형태소 분석의 원리인 결합과 대치를 통해 형태소를 직접 분석하기

▶ 방법

- ① 형태소의 개념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간단한 문장을 음절별로 아래의 퍼즐 가운데 칸에 칸칸이 나누어 적는다.
- ② 각각의 음절에 다른 말을 학생들이 넣을 수 있는지 위와 아래의 빈칸에 적어보도록 하고 그것이 바뀔 수 있는지 부분부분을 돌려가며 확인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넣을 수 있는 경우라 해도 그것이 의미를 깨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③ 이번에는 앞에서 대치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서 음절이 이어진 부분을 함께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 ④ 이번에는 ①번 퍼즐의 음절 사이에 다른 말을 넣어 올바른 문장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 ⑤ 이러한 방식을 종합하여 형태소의 정의에 유의하면서 이 문장을 각각의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의 차이를 이해하기

▶ 개요 : 자립성의 개념을 파악하여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 형태소가 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확인하기

▶ 방법

- ① 학생들에게 자립 형태소로 제시된 예와 의존 형태소로 제시된 예들을 칠판에 적는다.
- ② 그 예가 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의 예를 교사가 제시한다.
예> 하늘 - 천고마비란 이것이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것은?
- ③ 의존 형태소는 이러한 방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 없음을 학생들에게 보인다.
예> 맑 - 가을 하늘은 이렇다고 한다.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답이 ‘맑-’만 나오지는 않는다)
- ④ 이러한 질문으로 답이 될 수 있는 말과 그렇지 못한 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 ⑤ 학생들이 탐구 과제로 제시되는 자료를 형태소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각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인지 의존 형태소인지를 이러한 질문 만들
기 방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한다.
예> ‘꽃사랑’의 ‘꽃’은 자립 형태소인가 의존 형태소인가?

▶ 주의 : 이러한 분석에 사용된 예에는 의존명사나, 관형사의 예는 제외한다. 이 두 경우는 품사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된 후에 다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구분하기

▶ 개요 : 형태소를 나누고 각 형태소에 해당하는 한자를 생각해 보기

▶ 방법

① 앞에서 익힌 분석과 대치의 방법을 중심으로 일정한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한다.

예> 나의 사랑을 믿기 바란다. - 나, 의, 사랑, 을, 믿, 기, 바라, ㄴ, 다

② 분석한 각각의 형태소에 적절한 한자나 영어 단어를 떠올려 보자.

예> 나(我, I), 의, 사랑(愛, love), 을, 믿(信, trust), 기, 바라(希, hope), ㄴ, 다

③ 각각의 형태소 중에서 쉽게 한자나 영어 단어로 바꿀 수 있었던 것과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④ 한자나 영어 단어로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이고 바꾸기가 어려웠던 것은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그 이외의 다른 문법적 의미를 표현하는 형태소이며, 이들을 각각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라고 부른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확인시킨다.

단어의 개념 파악하기

▶ 개요

단어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앞에서 이용한 형태소 분석 퍼즐과 자립 형태소 분류 을 위한 질문 만들기를 이용하여 자립형태소가 단어를 이룬 것, 의존형태소끼리 모여 단어를 이룬 것, 의존 형태소인 조사가 하나의 단어가 된 것으로 나눠 그 특징을 확인하고 단어를 구분하기

▶ 방법

① 형태소 분석 퍼즐에서 다른 말을 끼어 넣을 수 없는 경우와 음절별로 대치가 되지 않고 여러 음절이 함께 대치되어야 하는 경우를 찾아보자.

② 형태소 퍼즐에서 의존형태소끼리 연이어 결합한 부분과 자립 형태소와 결합한 의존 형태소를 찾아보자.

③ 각각의 경우에 실질 형태소는 몇 개나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④ 이렇게 분석을 한 각각을 모두 단어가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몇몇 예를 통해 학생들이 각각의 단어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⑤ 이러한 활동을 종합하여 학생들이 단어를 이루는 조건에 대해 형태소의 특징에 따라 설명하고, 단어의 특징을 형태소의 특징에 따라 설명하도록 한다.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개념 구분하기

▶ 개요 : 복합어와 합성어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그 차이를 떠올릴 수 있는 머리 글자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 방법

①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 등 단식과 복식으로 운동을 하는 종목들을 나열한다.

② 단식과 복식의 대립을 이용하여 단일어의 상대어가 복합어임을 인식하게 만든다.

단식 : 복식 = 단일어 : 복합어

③ 복식 경기의 종류에도 동성끼리 하는 방식과 남녀 혼합 복식으로 하는 경기가 있음을 이용하여 합성어와 파생어를 인식하게 만든다.

합성법과 파생법이 반복된 단어의 합성어와 파생어 구분하기

▶ 개요

IC 분석의 마지막 단계가 합성법에 의한 것인지 파생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 구별하기

▶ 방법

①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라는 격언을 학생들에게 주시시키고 형태소를 분석한다.

예> 금목걸이 - 금, 목, 걸, 이 평화적 - 평, 화, 적

② 학생들이 전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려하여 각 형태소를 결합시켜 보도록 한다.

예> 금, 목, 걸, 이 평, 화, 적

1단계 : 금, 목, 걸 + 이 평+화, 적

2단계 : 금, 목 + 걸이 평화 + 적

3단계 : 금 + 목걸이

③ 최종 단계에서의 결합 과정을 잘 살펴보고 그 결합 과정이 파생어에 속하는지 합성어에 속하는지 학생들이 판단하게 한다.

예> 금(단어, 어근)+목걸이(단어, 어근) 평화(단어, 어근)+적(접미사)

금목걸이 → 합성어 평화적 → 파생어

④ 거꾸로 된 계통수 그림으로 단어 형성 과정을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한다.

▶ 주의

형태소끼리 결합을 시킬 때 아무 형태소나 함께 결합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며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 다음 보기의 단어들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나뭇잎, 등긋길, 텃밭, 고깃배 : 어선(漁船), 고기 배 : 물고기의 배

1-1. 위의 단어들을 보고 소위 ‘사이 시옷’의 경우 형태소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형태소의 정의에 유의하여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사이 시옷은 의미의 최소 언어 형식이라는 형태소의 정의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그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 는 자리도 일관성이 없어서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하기 어렵다. ‘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 1의 내용 참조.

1-2. ‘사이 시옷’이 쓰인 단어들의 형성법을 관찰하고 우리말에서 ‘사이 시옷’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이 시옷은 현재 우리말에서 주로 합성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이 시옷은 단어 형성법에서 합성 어임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

해당 교육 과정 내용 (7차를 중심으로 정리)

해당 교과서 단원

7-(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생활 국어 1-2 2.낱말과 형태소

(1) 음절과 어절, 낱말

(2) 형태소

8-(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생활 국어 2-2 2. 낱말 형성법과 국어 관용어

(1) 낱말 형성법

① 관련 내용 정리

－ 형태소와 낱말 관련 내용

-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 소개
- 형태소를 의미의 실질성 유무와 자립성 유무에 따라 분류
- 낱말을 형태소의 구성 방식에 따라 분류

－ 국어 조어법 관련 내용

- 어근과 접사의 개념 소개
- 낱말의 형성법을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어 소개
- 복합어를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어 소개
- 파생어에 관련 내용 중 접두사와 접미사 관련 활동 소개
- 합성어를 형성 방법과 의미를 고려하여 분류

② 7차 문법 교과서와의 차이점 및 특징

- － 중학교 내용에서는 ‘단어’ 대신에 ‘낱말’이라는 용어 사용
- － 중학교 내용에서는 형태소의 하위 분류는 하지만 그에 따른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의존, 자립, 실질, 형식 형태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 중학교 내용에서는 접사를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로 하위 분류하지 않음
- － 중학교 내용에서는 파생법에 관련하여 ‘접두사’와 ‘접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 합성어를 형성 방법과 의미를 고려하여 분류한 것은 중학교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음
- － ‘문법’ 내용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 관련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
- － ‘문법’ 내용에서는 합성어의 구성 방식에 따른 하위 분류에서 ‘반복 합성어’를 소개함

〈질문 1〉 우리말에 접요사는 없나요? ‘나뭇잎’의 ‘ㅅ’이나 ‘좁쌀’의 ‘ㅂ’, ‘암탉’의 ‘ㅎ’은 접요사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접사란 어떤 어근/어간 형태소에 덧붙어서 그 의미나 기능을 더하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접요사란 어근/어간 형태소의 내부를 뚫고 삽입될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일단 ‘암탉’의 경우는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역사적인 어근 형태소 ‘암ㅎ’과 ‘닭’이라는 형태소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일단은 ‘ㅎ’을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요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좁쌀’의 경우는 ‘조’라는 어근 형태소와 ‘쌀’이라는 어근 형태소 사이에 ‘ㅂ’이 덧붙여간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국어의 ‘쌀’이 중세국어에서 ‘쌀’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ㅂ’이 단순히 ‘조+쌀’ 사이에 끼여든 접요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세국어의 ‘쌀’의 합용 병서 초서 ‘ㅂ’이 앞말의 받침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뭇잎’의 경우 ‘나무’라는 어근 형태소와 ‘잎’이라는 어근 형태소의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고, ‘좁쌀’의 경우는 ‘조’라는 어근 형태소와 ‘쌀’이라는 어근 형태소 사이에 ‘ㅂ’이 덧붙여가 있습니다.

사실 ‘사이 시옷’과 관련된 논의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것이 접요사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형태소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이 시옷’이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는가는 형태소의 정의와 비취 생각해 보면 일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언어 단위를 말하는데 ‘사이 시옷’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 시옷이 쓰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이 있는데(고깃배:고기배, 나뭇집:나무집) 이러한 경우에도 ‘사이 시옷’의 일관성 있는 의미를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시옷을 관형격 조사 ‘의’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관형격 조사의 쓰임으로 부적절한 예들(고깃배, 나뭇집, 등갯길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이 시옷이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한글맞춤법에서도 사이 시옷의 표기 문제는 주로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후행

자음이 경음화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수 있는 조건도 합성어에서 선행 어근의 받침 소리가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이 시옷’은 의미와 관련된 형태소라기보다는 소리의 관련된 표기 문제의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형태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접요사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이 시옷’은 합성어 구성보다는 ‘-의’처럼 속격조사로 주로 쓰였습니다.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이 시옷’을 존칭체언이나 무정체언 뒤에 쓰이는 속격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국어를 지나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사이 시옷’은 속격조사로서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구성에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책꽂이, 해돋이, 돈벌이, 홀로서기’ 등은 파생어인가, 합성어인가?

<답변> 파생법은 하나의 자립요소(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와 접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합성법은 두 개 이상의 자립요소와 접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미 하나의 단어를 이룰 복합어가 다시 파생을 한다거나 합성을 하여 새로운 단어를 이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어근과 접사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교 문법에서는 합성어의 파생이나 파생어의 합성이라는 내용을 수록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합한 요소가 어근인가 접사인가에 따라서 합성어와 파생어로 결정이 됩니다. 우선 위 단어의 형성 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책꽂이 : 명사 + 동사 + 접미사

해돋이 : 명사 + 동사 + 접미사

돈벌이 : 명사 + 동사 + 접미사

홀로서기 : 부사 + 동사 + 접미사

모두 2개의 어근과 접미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구성 방식의 순서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책꽂이’의 경우에는 ‘꽂다’라는 동사가 우선 접미사 ‘-이’와 결합을 하고 이것이 다시 명사 ‘책’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꽂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하지 않는 것은 ‘책꽂다’라는 합성 동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올바른 말은 아니지만 ‘꽂이’나 ‘꽂이개’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며, ‘꽂꽂이’와 같은 단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꽂다’와 ‘-이’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여기에 다시 ‘책’이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고려한다면 이 단어는 합성어라 할 수 있습니다. ‘돈벌이’도 이와 유사합니다. ‘벌이터, 벌잇속, 벌잇자리, 벌잇줄, ‘벌이가 시원찮아.’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벌이’가 자립성이 있어 또 다른 합성명사를 형성하거나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돈뽀이]처럼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돈벌이’를 ‘돈+벌이’로 분석한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합성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돋이’의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돋이’의 경우는 ‘해돋다’라는 합성 동사도 존재하지 않고, ‘돋이’라는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성분분석이나 형성과정을 유추해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해돋+이’로 분석할 때는 최종적으로 ‘파생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돋이’로 분석할 때는 최종적으로 ‘합성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서다’라는 합성 동사도 ‘서기’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합의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파생어도 될 수 있고 합성어도 될 수 있습니다.

‘명사+동사+접사’형 단어는 합성법과 파생법이 모두 쓰인 것이어서 이러한 단어들을 합성어[compound word]와 파생어[derived word]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복합어[complex word]라고 부르기도 하고, 합성과 파생을 모두 거친 혼합어[mixed word]라는 개념으로 일컬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한자어를 한 음절마다 형태소로 분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자어를 음절별로 형태소 분석할 때 각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인가?

<답변> 우선 한자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에서 모든 한자를 하나

의 형태소 보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한자어의 특성에 따라서 형태소 분석의 문제는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하나를 형태소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는 한자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생(前生), 패배(敗北), 남북(南北)’ 등의 한자어는 한자 하나하나가 모두 형태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각 한자의 의미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소로서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할 경우 문제가 되는 한자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자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각 한자의 의미가 단어 내에서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낭만(浪漫), 공부(工夫)’ 등은 각 한자로 분석을 해도 그 의미를 통해 전체 단어의 의미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한자어 자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것이 보다 온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한자어는 물론 중국어에 그 어원을 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말에서 고유어처럼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석에 있어서도 우리말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기우(杞憂), 퇴고(推敲), 갈등(葛藤), 모순(矛盾)’ 등과 같이 공시적인 분석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각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어원적 측면에서는 한자별로 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자어의 경우 한자별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할 경우 모든 한자는 실질 형태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형태소를 분류할 때 그 의미가 어휘적 의미를 갖는가, 아니면 문법적인 의미로 형식적 의미만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는 뜻글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자어의 경우 각 형태소로 분석이 된다면 각 한자는 모두 실질 형태소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러한 한자의 문자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자어의 분석에서 모든 한자가 실질 형태소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자어의 구성에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한자의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개 한자어의 경우 이러한 한자는 접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접사가 모두 형식 형태소인가의 문제는 다음의 질문 내용 참고) 그 단어 자체는 파생어가 됩니다. 이렇게 한자어와 관련된 한자 접사를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두사

반-(反) : ①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반대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반비례/반우주/반인력/반작용. ②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대다수 명사 앞에 붙어』 '그것에 반대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반독재/반체제.

부-(不) : 『ㄷ, ㄸ'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 붙어』 '아님', '아니함', '어긋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부도덕/부정확/부자유. 概1불-15.

부-(副) : ① 『직위 따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버금가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부반장/부사장/부사수. ②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부차적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부산물/부수입.

총-(總)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전체를 아우르는' 또는 '전체를 합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총감독/총결산/총공격. 概1총06(總).

접미사

-별(別)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에 따른'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능력별/성별/월별/직업별/학년별.

-부(附) : ① 『날짜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오늘부/12월 23 일부. ②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딸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권리부/기한부/시한부/조건부.

-부23(部)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부분'이나 '부문(部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머리부/중심부/어휘부.

-순(旬) : 『수사 뒤에 붙어』 '해당 수에 십을 곱한 나이'라는 뜻을 더하고 명사로 만드는 접미사. 『칠순 노인/육순 잔치.

-순(順)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도착순/선착순/나이순/이름순.

-적(的)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급적/국가적/기술적/문화적/비교적/사교적/일반적/전국적.

<질문 4> 접사는 형식 형태소인가요, 실질 형태소인가요?

<답변> 우리는 흔히 접사는 형식 형태소로 보고 있지만 몇몇 파생어를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접사라고 부르는 것이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만두’나 ‘풋살구’에서 ‘왕-’과 ‘풋-’이 어떤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법적 의미보다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현재 학교문법에서는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로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을 표시하는 형태소”로 규정하고 있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형태소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정의합니다. 후자를 문법형태소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체언이나 용언과 같은 단어(또는 어근)에 해당하고, 형식 형태소에는 이러한 실질 형태소에 붙는 조사나 어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파생어의 접두사나 접미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어미와 유사하여 형식 형태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접두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후행하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형식 형태소이기보다는 실질 형태소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파생어의 정의를 보면 “실질 형태소(어근)에 형식 형태소(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파생접사나 소위 굴절 접사(조사와 어미)가 의미적으로 모두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이상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접두사를 실질 형태소로 인정하면 접두 파생어의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 +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파생어이기보다는 합성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접사, 특히 접두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파생접사의 경우는 실질과 형식의 구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호한 답을 하게 된 원인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접사들이 대부분 통시적으로는, 즉 과거에는 실질 형태소나 하나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실질 형태소였던 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 형태소화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현재의 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사 중에는 형식 형태소로 거의 정착된 것이 있는 반면, 아직도 실질 형태소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혼재해 있는 것입니다.

<질문 5> 관형사와 접두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답변> 이 질문은 결국 어근과 접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서 보면 관형사와 접두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형사는 어근으로 보고 접두사는 접사로만 인정할 뿐입니다.

사실 어근과 접사의 구분과 관련된 이 문제는 단어 형성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앞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접사들이 대부분 통시적으로는 실질 형태소였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접사는 대체로 자립적인 용법이 없고 어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법적인 의미가 강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절대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관형사 역시 자립성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자립성 면에서도 접두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고, 의미 면에서는 접두사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접두사와 관형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관형사는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서 자립적 역량을 가지며 다음 단어와의 사이에 일정한 휴지를 두고 발음되지만, 접두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 온 마을 (관형사) 외아들 (접두사)

둘째, 관형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도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으나 접두사는 그 자체가 단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어 형성에서 관형사보다 제한적이다.

예 관형사: 온 나라, 온 세상, 온 마을, 온 도시...

예 접두사: 외기러기, 외아들, 외딸, *외구두, *외양말

셋째, 관형사는 구조적으로 그 뒤에 다른 관형어가 삽입될 수 있으나, 접두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 **관형사: 어느 다른 공장, 무슨 별다른 생각**

예) **접두사: *외 귀중한 아들, *꽃 신선한 과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억양이나 휴지 등의 기준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형사가 합성어를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실제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신랑’은 하나의 단어이고 ‘새 옷’은 어구인데 이 경우 억양이나 휴지에 차이가 실제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형사라 해서 피수식어 사이에 관형어의 삽입이 모두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 예쁜 옷, ??새 좋은 책상”보다는 “예쁜 새 옷, 좋은 새 책상”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도 모든 관형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기준이 접사 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붕’이나 ‘주검’ 등에서 ‘-옹’이나 ‘-엄’ 등을 접사로 볼 경우 이러한 접사와 결합하는 어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나타내는 ‘-가’나 ‘-이’라는 접사의 생산성은 매우 높습니다. 접두사의 경우에도 부정을 나타내는 ‘비-’나 ‘불-’ 등의 접사는 매우 생산성이 높아서 관형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관형사의 경우에도 후행 피수식어와의 의미적 선택 제약에 의해서 생산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밝힌 ‘새’라는 관형사가 수식어로 많이 쓰일 수 있지만 ‘새 고물’이나 ‘새 재혼, 새 멸망’ 등의 수식 관계를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접두사의 경우에는 선택 제약으로 인한 생산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산성 문제에서 접두사와 관형사에서의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질문 6> 관형사와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입니까, 의존 형태소입니까?

<답변> ‘자립’이란 용어는 미국의 기술언어학에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한국어 문법을 기술하는 데에도 유용한 개념이기에 학교 문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말을 관찰해 보면, 형태소들 중에서, 스스로 독립해서 쓰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신’에서의 ‘새’와 같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피수식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새’도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먹’과는 자립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와 같은 수식어도 의존적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부사가 관형사보다는 더 독립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관형사에 비하여 부사가 상당히 자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철수가 언제 왔냐? 어제.
순희가 밥을 어떻게 먹든? 빨리.

의존 명사류들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자립], [-자립] 등으로 2분해서 이해하지만 실제의 현상들을 광범위하게 관찰해 보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7> ‘꽃내기’는 파생어인가요, 합성어인가요?

<답변> ‘꽃내기’의 경우에는 ‘꽃-’과 ‘-내기’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꽃-’은 접두사에 해당하고, ‘-내기’는 접미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꽃사과, 꽃살구, 꽃마늘, 꽃사랑’과 ‘시골내기, 서울내기, 시골내기’ 등을 살펴보면 이 두 형식이 접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문법에서 우리말의 조어법과 관련하여 ‘접두사+접미사’라는 구성을 보이는 경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결국 단어에 어근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단어가 탄생한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두 접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꽃-’의 경우에는 ‘풀[艸]’이 그 어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기’의 경우에는 ‘낳다’에서 온 말로, ‘낳다’에 접미사 ‘-기’가 다시 붙어서 ‘낳기’가 ‘내기’로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이 두 접사는 실제로는 모두 어근을 갖고 있는 말이 되는 셈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어근이 없는 말이지만 통시적으로는 어근이 두 개나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파생어도 합성어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원적인 분석을 할 경우에는 합성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러한 단어 형성의 과정을 고려해 보아도 접사를 무조건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는 데에는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8> ‘늦더위, 늦잠’은 비통사적 합성어인가요?

<답변> 사실 이 문제는 ‘늦-’을 접사로 볼 것인가, 어근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늦-’을 ‘늦다’에서 온 어근으로 본다면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늦-’이 접두사의 목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러한 단어들이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이 왜 접사가 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늦은더위, 늦은잠’이라는 형식이 존재한다면 문제될 것 없이 그냥 합성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늦-’이 접두사로 보는 근거로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들을 여전히 파생어보다는 합성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실제 7차 문법 교과서에서도 합성어로 다루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큰-’과 ‘작은-’을 역시 접두사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파생어가 됩니다.

<질문 9> 우리가 흔히 쓰는 ‘먹거리’는 왜 비표준어인가요?

<답변> ‘먹거리’의 표준어는 ‘먹을거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언중들이 ‘먹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거리’가 비표준어이고 ‘먹을거리’가 표준어인 것은 그 단어 형성 방법에서 ‘먹거리’가 일반적인 우리말의 형성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먹거리’를 굳이 분석하자면 동사 어간인 ‘먹-’에 의존명사인 ‘거리’가 붙은 단어입니다. 표준어인 ‘먹을거리’의 경우에는 어간 ‘먹-’에 관형사형 어미 ‘-(으)르’, 의존명사 ‘거리’가 붙은 단어입니다. 용언 어간이 명사와 결합할 때 관형사형 어미를 취한다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거리’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본다면 비표준어가 될 이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용언의 어간이 그대로 체언에 결합하는 단어 형성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말 중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 형성 방법을 보이는 단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꽃감’의 예를 들자면 이 경우에는 동사 어간 ‘꽃다’에서 온 ‘꽃-’에 명사인 ‘감’이 결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는 단어에는 ‘접칼, 덮밥’ 등이 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먹거리’가 비표준어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많은 언중들이 ‘먹을거리’보다는 ‘먹거리’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의 어떤 시기에는 ‘먹거리’가 표준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다음 예를 바탕으로 형태소를 탐구해 보자.**

하늘에, 나와 너, 할 수 없지, 시원하다. 반짝반짝, 그 사람, 웬 떡이나, 첫 싸움, 어서 오너라, 펍 종구나, 꽃사랑, 걱정스럽지, 아이구, 예

· 위의 자료를 형태소 단위로 나누어 보자.
하늘에(하늘/에), 나와 너(나/와/너), 할 수 없지(하/르/수/없/지), 시원하다(시원/하/다),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사람(그/사람), 웬 떡이나(웬/떡/이/냐), 첫 싸움(첫/싸우/口), 어서 오너라(어서/오/너라), 펍 종구나(펙/종/구나), 꽃사랑(꽃/사랑), 걱정스럽지(걱정/스럽/지), 아이구(아이구), 예(예)

· 위에서 분석한 형태소를 다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
자립 형태소 - 하늘에(하늘), 나와 너(나/너), 할 수 없지(수), 시원하다(없음),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사람(그/사람), 웬 떡이나(웬/떡), 첫 싸움(첫), 어서 오너라(어서), 펍 종구나(펙), 꽃사랑(사랑), 걱정스럽지(걱정), 아이구(아이구), 예(예)
의존 형태소 - 하늘에(에), 나와 너(와), 할 수 없지(하/르/없/지), 시원하다(시원/하/다), 반짝반짝(없음), 그 사람(없음), 웬 떡이나(이/냐), 첫 싸움(싸우/口), 어서 오너라(오/너라), 펍 종구나(종/구나), 꽃사랑(꽃), 걱정스럽지(스럽/지), 아이구(없음),

예(음)

• 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형태소가 있었다면, 왜 어려웠는지 생각하여 보자.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학생들이 ‘싸움’에서 ‘싸우’와 ‘ㄷ’을 형태소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조사 이외의 어미를 분석하는 것은 모두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할’을 ‘하’와 ‘ㄹ’로 분석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관형사형 어미를 분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 ‘웬’을 ‘웨’와 ‘ㄴ’으로 오분석할 수도 있다. 또한 ‘오너라’의 경우에도 어미 ‘-너라’를 ‘너’와 ‘라’로 따로 분석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구나’에서도 ‘구나’를 ‘구’와 ‘나’로 분석할 수도 있고, ‘걱정스럽지’에서 ‘스렵’을 다시 분석하여 ‘스’와 ‘렵’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과도한 분석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결합과 대치라는 형태소 분석의 원리를 분석 대상에 적용하지 않고 어미가 1음절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나만 예를 들면 실제로 ‘종구나’가 ‘종+구나’인지 ‘종+구+나’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구’ 대신에 들어가 수 있는 말, 또는 ‘나’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거나 ‘구’와 ‘나’ 사이에 넣을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면 학생들도 쉽게 ‘-구나’가 하나의 형태소로 묶여야 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단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조사는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모듈별로 토의한 후 발표하여 보자.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실 학교 문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요구하는 것은 조사는 단어라는 정답이 아니라 조사의 성격을 단어가 갖는 특징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단어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만듦”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자립성이라는 문제이다. 학생들이 자립성을 갖는 것을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조사는 자립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생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는 다양한 예를 보여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관형사나 의존명사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자립성이 없는 것도 단어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발문을 제시한다거나, 자립성이 없고 쉽게 분리가 되는 ‘-고’와 같은 어미는 단어가 되는가라는 발문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관형사, 의존명사, 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예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주장〉

- ▶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성분과 결합하기 때문에 쉽게 분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는 단어에 포함되어야 한다.
- ▶ ‘-고’ 같은 어미도 어간과 쉽게 분리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합하는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정의에 따르면 단어로 할 수 없다.

〈조사를 단어로 보지 않는 주장〉

- ▶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것은 단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것, 바, 줄, 수’와 같은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립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의대로라면 의존명사에 붙은 조사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체언에 붙은 조사만이 단어가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 ▶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조사는 사실상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조사나 어미가 문법적 의미를 갖는 형식형태소이면서 의존형태소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체언에 붙는 조사만을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 논리이다.

〈단어의 정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

- ▶ 자립성이 있는 것이 단어가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단어를 정의할 경우 의존명사나 관형사 자체는 자립성이 없어서 단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립성만으로 단어를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단어 개념 정립에 바르지 못한 것 같다.

① 다음 예를 통하여 단어의 형성을 탐구하여 보자.

시부모, 첫날밤, 공부하다, 코웃음, 평화적, 학교, 나무

• 위 단어들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보자.

결합과 대치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과제에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냥 자신의 언어적 직관에 의존하게 하지 말고, 결합과 대치의 원리를 이용하여 단어 하나하나의 형태소 분석에 접근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부모[시+(부+모)], 첫날밤[첫+날]+밤], 공부하다[(공+부)+(하+다)], 코웃음[코+(웃+음)], 평화적[(평+화)+적], 학교(학+교), 나무(나무)

• 위 단어들을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어 보자.

이 경우 우선 학생들이 파생어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단어의 형성을 구분하기에는 접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자어에 접사인 ‘시-’나 ‘-적’을 학생들이 쉽게 접사라고 인식하기도 어렵다. 고유어의 경우에도 ‘첫’이 관형사인지 접두사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하다’를 접사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한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학교’를 하나의 형태소로 파악할 가능성도 크다. 우선 앞에서 실시한 형태소 파악에 중점을 두되, 접사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참고하여 접사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도 국어사전에 따라서는 접사와 관형사의 구분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시부모(파생어), 첫날밤(합성어), 공부하다(파생어), 코웃음(합성어), 평화적(파생어), 학교(합성어), 나무(단일어)

② 다음 단어를 바탕으로 단어의 형성 문제를 더 생각해 보자.

새콤달콤하다

- 위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 보자.
새콤달콤하다(새콤/달콤/하/다)
- 위 단어는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말하여 보자.

분석한 형태소를 나열하고 그 나열한 형태소가 어떠한 순서로 결합하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파악하도록 하면 이미 앞에서 ‘-하다’가 접미사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 단어가 합성된 후에 이어서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파생어라는 것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다.

① 다음 예로 접두사와 접미사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 돌배, 홀어미, 시누이, 양배추, 올벼, 풋잠
- 요술쟁이, 놀이, 달리기, 지우개, 복동이(사람 이름), 개구리, 오르막

• 위 단어들에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가려 내어 보자.

학생들에게 위의 단어들이 모두 파생어라는 점을 일단 인식시킨 후에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분하게 한다면 별문제 없이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을 시도하면서 과제에 접근할 수도 있다.

접두사 - 돌, 홀, 시, 양, 올, 풋

접미사 - 쟁이, 이, 기, 개, 이, 이, 막

<주의> - 접미사의 경우 ‘-이’라는 접사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한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오르막’의 경우 ‘-ㄱ’과 ‘-악’으로 형태소를 분석하여 둘 모두를 접미사로 보고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막’ 자체를 하나의 접미사로 보고 있다.

• 각각의 접두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사하여 발표하여 보자.

학생들이 우선 자신이 생각하는 접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내용을 사전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그 의미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이므로 그냥 단순히 학생 개인의 생각만을 표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접두사가 쓰인 예를 더 찾도록 하거나 같은 형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접두사까지 확인하는 것도 접두사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

돌 -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돌미역, 돌조개.

홀 -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짜이 없이 혼자뿐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홀몸, 홀시아버지, 홀시아머니, 홀아비 槓01.

시(嫗) -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남편의'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 시(視)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여김' 또는 '그렇게 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등한시, 백안시, 적대시.

양(洋)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서구식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양변기, 양약, 양송이, 양담배.

※ 양(養) -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양부모, 양아들, 양딸. 槓 생

올 -① 『꼭식이나 열매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빨리 자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올밤, 올콩, 올벼.

② 『몇몇 동사 앞에 붙어』 '빨리'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올되다. 槓오-16. 槓 닛-02.

풋 -①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풋감, 풋고추, 풋과실, 풋김치, 풋나물, 풋콩.

②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풋사랑.

• 위의 예에서 품사가 변한 단어를 찾아보자.

품사에 대해서 고등학교 ‘문법’ 책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품사에 배우게 되므로 그 내용을 다시 되살리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특히 품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아니라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에서라는 점과 각 접미사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재확인하도록 유도한다.

- 놀이 - 동사 ‘놀다’에서 명사로 파생, ‘이’는 명사 파생 접미사
- 달리기 - 동사 ‘달리다’에서 명사로 파생, ‘기’는 명사 파생 접미사
- 지우개 - 동사 ‘지우다’에서 명사로 파생, ‘개’는 명사 파생 접미사
- 개구리 - 부사 ‘개굴개굴’에서 명사로 파생, ‘이’는 명사 파생 접미사
- 오르막 - 동사 ‘오르다’에서 명사로 파생, ‘막’은 명사 파생 접미사

※ ‘개구리’의 경우 그 어근이 ‘개굴’이 아니라 ‘개굴개굴’이라는 부사라는 점을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첩어성을 갖는 부사인 ‘개굴개굴’에서 ‘개굴’ 하나가 탈락한 후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개구리’가 된 것이다.

② 다음 자료로 파생어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글썩	반짝	으르렁	아찔	홀쩍
-거리다	글썩거리다	반짝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아찔거리다	홀쩍거리다
-대다	글썩대다	반짝대다	으르렁대다	아찔대다	홀쩍대다
-이다	글썩이다	반짝이다	으르렁이다	아찔이다	홀쩍이다
-하다	글썩글썩하다	반짝반짝하다	으르렁으르렁하다	아찔아찔하다	홀쩍홀쩍하다

· 위 단어들에서 접미사를 분리하여 보자.

1) 접두사는 품사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메마르다’의 경우 동사인 ‘마르다’에 ‘메-’라는 접사가 붙어서 형용사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접두사가 결합해도 어근의 품사는 바뀌지 않는 것이 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거리다, 대다, 이다, 하다

※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거리-, -대-, -이-, -하-’라고 하여 어미 부분을 빼고 접미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어미까지 포함하여 접미사로 보아야 한다.

· 어감이 어색한 말 앞에 별(*)표를 하여 보고, 자신의 판단과 친구들의 판단을 비교하여 보자.

반짝대다, 으르렁이다, 아찔거리다, 아찔대다, 아찔이다

① 다음 예로 합성어를 탐구해 보자.

- 음치(音癡), 춤치(-癡), 길치(-癡), 방향치(方向癡)
- 문맹(文盲), 컴맹(com盲), 넷맹(net盲)
- 햄버거(hamburger), 새우버거, 치즈버거, 김치버거
- 아점(늦은 아침에 먹는 아침 겸 점심 식사), 짬짜면(짬뽕과 자장면을 반씩 담아 한번에 내는 음식)

· 이 합성어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특징을 알아보자.

우선 이 활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늦더위’라는 단어이다. 이 활동에서는 이 단어도 합성어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늦-’이 접두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늦더위’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로 보아야 한다. 이 외에도 교과서 본문에서 합성어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 ‘큰아버지’와 ‘큰집’의 ‘큰’의 경우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맏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보고 있어서 역시 파생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소를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의 경우에는 ‘늦’은 접두사로 인정하지만 ‘큰’의 경우에는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큰’뿐만 아니라 ‘작은’도 접두사로 등재되어 있다. 일관성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큰’이나 ‘작은’의 경우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과 이 형태 이외에는 다르게 활용되지 않아서, 즉 관형사형 어미과 결합된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접두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늦더위’의 경우에는 합성어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활동은 합성어를 그 구성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어 생각하고 비통사적 합성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된 방식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구나 어절의 구성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단어들은 주로 앞에 용언의 어간이 오고 다음에 명사가 결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용언 어간 다음에 명사가 올 경우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마치 명사를 수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접는 삼, 늦은 후회, 산을 덮은 구름’과 같은 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의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없이 그대로 어간과 명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다.

·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합성 명사의 예를 더 찾아보자.

‘껌쇠, 감발, 늦잠, 검붉다’ 등이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앞의 내용을 참고하면 ‘늦잠’ 역시 파생어로 보아야 한다. 이 외에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예> 검푸르다, 높푸르다, 굵주리다, 오르내리다, 날뛰다, 여달다, 감싸다, 엮매다, 붙잡다, 붙들다, 붙박다, 붙안다, 꽃감, 누비웃, 검버섯, 흔들바위 등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 형성법에 대하여 더 알아보자

덮밥, 접칼, 늦더위

· 위의 각 단어들이 형성된 원리를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음치와 문맹, 햄버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단어들은 대부분 최근에 만들어져서 언중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언뜻 보기에는 파생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생어로 보기가 어렵다.

특히 그 중에서 ‘춤치, 길치, 방향치’의 ‘치’는 마치 파생어의 접미사처럼 쓰여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고 있다. 사실 한자어인 ‘치’는 접미사로 쓰이는 동음이의어가 있지만(중간치, 평균치 등) 그와는 다른 의미로 접미사는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소를 현대인들이 마치 접미사인 것처럼 다른 어근에 결합시켜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한자어인 ‘맹’의 경우에는 ‘치’가 한자어나 고유어와 결합하는 것과 달리 외래어와도 결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또한 그 외래어는 컴퓨터, 인터넷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어근 자체가 모두 결합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생략된 상태로 ‘맹’과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것은 접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시 접미사가 아니다. 이 ‘맹’의 경우에는 동음이의어로 접두사에 쓰이는 예가 있기는 하다(맹물, 맹훈련 등).

결국 이러한 단어들은 마치 파생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된 형태소는 접미사가 아니므로 파생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는 합성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자어를 한자어 형태소 하나하나가 결합한 합성어로 본다면 이러한 경우를 합성어로 본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그 결합 과정이 파생어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파생어와 합성어의 상위 개념인 복합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버거’의 경우에는 분명히 합성어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햄버거는 ‘함부르크(Hamburg)’가 그 어원이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이러한 단어를 합성어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burger’ 독립된 어근으로 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이고 우리말에서도 ‘버거 소녀’처럼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는 예가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합성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국어를 그대로 외래어로 쓰면서 ‘새우버거, 김치버거’처럼 고유어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아점’과 ‘짬짜면’은 일종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아점’은 ‘아침’과 ‘점심’을 결합시키면서 어근의 일부를 생략한 것이다. ‘짬짜면’ 역시 ‘짬뽕’과 ‘자장면’을 결합시키면서 어근의 일부를 생략한 것이다. 합성법처럼 어근을 결합시킨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합성어와 같지만 어근의 일부가 생략되고 어근의 첫 음절만을 결합시킨다는 점에서는 특이하다. 특히 ‘짬짜면’의 경우에는 생략을 시키면서 현실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짜’를 그대로 단어 결합에 사용하였고, 본래 합성어인 ‘자장면’의 마지막 어근 ‘-면’은 그대로 결합을 시켰다. 이는 이 음식이 국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주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을 모둠별로 더 찾아보자.

파생어처럼 보이는 단어들 - 수다맨, 썰렁맨, 아이스맨, 오토맨, 슈퍼맨, 안티죽, 소호족 등이 교사용 지도서에 있으나 이 외에 더 예를 제시할 수 있다. 예> 아동틱, 유아틱, 새우깡, 고구마깡, 양파깡, 감자깡, 감자칩, 포테이토칩, 콘칩, 썬칩, 부라보콘, 월드콘, 죠스바, 돼지바, 누가바 등

유사한 방식의 합성어 - 교사용 지도서에는 ‘노찾사, 아나바다 운동’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예는 더 있다. 예> 우짜면(우동+자장면), 팝페라(pop+opera), 안습(안구에 습기가 차다 - 울음이 날 정도로 슬프다), 웃찾사(웃음을 찾는 사람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②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의 오용 사례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여 보자.

(가) 사회적 발전(X) → 사회(의) 발전(O)

(나) 차별성을 극복한다(X) → 차별을 극복한다(O)

(다) 바보답다, 평소답지 않게(X) → 바보 같다, 평소 같지 않게(O)

(라) 미쟁이, 칠쟁이(X) → 미장이, 칠장이(O)

(마) 점장이, 요술장이(X) → 점쟁이, 요술쟁이(O)

(바) 막동이, 쌍동이(X) → 막둥이, 쌍둥이(O)

(사) 서울내기, 꽃내기(X) → 서울내기, 꽃내기(O)

(아) 한 살바기(X) → 한 살배기(O)

(재) 굵배기(X) → 굵배기(O)

• 위 자료의 (가)~(재)를 바탕으로 ‘-적(的)’, ‘-성(性)’, ‘-답다’, ‘-장이’, ‘-쟁이’, ‘-동이’, ‘-내기’, ‘-배기’, ‘-배기’의 의미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합성어, 파생어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사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이러한 말들은 모두 접미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들은 파생어일 수는 있어도 합성어이기는 어렵다. 물론 파생어가 다시 합성을 하여 합성어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예는 많지 않다. 학생들이 이러한 예들이 쓰인 많은 단어들을 찾거나 만들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방법 외에도, 그 반대로 예를 통해서 그 접미사의 의미를 추정하게 하고 사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적(的)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가급적, 국가적, 기술적, 문화적, 비교적, 사교적, 일반적, 전국적.

—성(性)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순수성, 신축성, 양면성, 인간성, 잔인성, 적극성, 정확성, 창조성.

—답다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꽃답다, 남자답다, 사람답다, 정답다, 참답다, 선생님답다.

—장이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간판장이, 땀장이, 미장이, 양복장이, 옹기장이, 칠장이.

—쟁이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겁쟁이, 고집쟁이, 떼쟁이, 멧쟁이, 무식쟁이.

—동이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귀염둥이, 막내둥이, 해방둥이, 바람둥이.

—내기 :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서울내기, 시골내기. ② 『일부 어간이나 접두사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흔히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쓴다. 예> 신출내기, 여간내기, 꽃내기.

—배기 : ① 『어린아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두 살배기,

다섯 살배기. ②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나이배기, 알배기. ③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 機u-박이03.
-빼기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곱빼기, 밥빼기, 악착빼기.

• 위 문장에서 ‘-음’의 문법적, 의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각자의 의견을 말하여 보자.

우선 만화 속의 대화를 학생들이 직접 일반적인 대화의 내용으로 바꿔 보고 난 후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수월하다.

- 야, 너 오늘 죽음이야! → 야, 너 오늘 죽었어!
- 오늘 축구 경기, 한 마디로 끝내 줬음이다. → 오늘 축구 경기, 한 마디로 끝내줬다.
- 어제 그 둘 말이야, 정말 장난 아니었음이야. → 어제 그 둘 말이야, 정말 장난 아니었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ㅁ/음’은 주로 서술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술어와 관련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앞의 말이 체언과 같은 역할을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이다’는 체언과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ㅁ/음’은 서술어로서의 기능과 체언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 이러한 말투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자.

실제로 지금은 학생들이 이러한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교과서의 제작 당시에 쓰이던 표현이 현재는 안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킨다면 학생들이 잠시 쓰이다가 곧 사라져 버리는 말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투는 일종의 유행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투는 잠시 유행했다가 사라지며 또 다른 이상한 말투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 때는 ‘-하삼’이라는 말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 일상어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도 사실은 인터넷 말투가 연예인들에게 전해서 젊은 세대의 언중들이 유행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기본용어 정리

◆ 형태소

의미를 지닌 최소의 요소로서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문법 단위이다. 주로 대치와 결합의 원리에 따라 분석을 하여 형태소를 규명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기준은 공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변화를 입은 언어 단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자립 형태소

형태소 중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즉 자립성을 갖춘 형태소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된다. 자립 형태소를 단어의 경우로 살펴보면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룬 단일어는 자립 형태소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조사의 경우에는 자립성이 없으므로 자립 형태소라고 할 수 없다.

◆ 의존 형태소

형태소 중에서 홀로 쓰이는 경우가 없는, 즉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를 말한다. 대표적인 의존 형태소로는 용언에 쓰인 어미와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파생어에서 어근에 결합한 접사 또한 의존 형태소이다.

◆ 실질 형태소

형태소 중에서 주로 어휘적인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를 의미한다. 그 형태소만으로도 분명한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 형태소인데 용언과 체언의 어근이 대표적인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 형식 형태소

형태소 중에서 주로 문법적인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를 의미한다.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조사와 어미는 대표적인 형식 형태소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접사는 문법 형태소로 처리하지만 접사 중에는 단순히 문법적 의미만을 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접두사의 경우에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접두사는 일반적인 어근과는 다르지만 문법적 의미보다는 어휘적 의미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단어

단어에 대한 정의는 대단히 여러 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는 Bloomfield의 ‘최소 자립 형식’이라는 정의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도 각 언어의 특징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우리말의 경우에도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조사’는 자립형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조사와 어미의 단어 인정 여부에 따라서 단어 구분의 입장이 ‘종합주의’, ‘준종합주의’, ‘분석주의’로 나뉘는데 ‘종합주의’의 경우에는 조사와 어미 모두를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결합되는 어근의 일부로 보는 입장이고, ‘분석주의’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개별 단어로 보는 입장이다. ‘준종합주의’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면서,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우리의 학교 문법과 같은 체제이다.

◆ 어근

단어 형성의 과정에서 해당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이 어근에는 불규칙 어근과 규칙 어근이 있는데 불규칙 어근의 경우(예: 깨끗-, 아름- 등)에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며 그 품사를 분명히 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규칙 어근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며, 품사도 분명하게 파악이 된다.

◆ 접사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그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어근 이외에 비핵심부에 해당하는 의존 형태소를 접사라 한다.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어근의 앞에 붙는 경우에는 접두사, 어근의 뒤에 붙는 경우에는 접미사로 분류한다. 또한 접사가 하는 기능에 따라서 어근의 의미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한정 접사,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지배 접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접두사는 한정 접사의 기능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메마르다’의 ‘메-’는 동사 ‘마르다’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꿔 주므로 지배적 접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파생 접사

접사 중에서 새로운 단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접사를 파생 접사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사라고 부르는 접두사, 접미사, 한정 접사, 지배 접사 등은 모두 파생 접사이다.

◆ 굴절 접사

새로운 단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접사를 굴절 접사라 한다. 이러한 굴절 접사는 어미로 대표되는데 어미의 경우 어간, 어근에 결합한다고 해도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 것이 아니며, 새로운 품사로 기존의 어간, 어근이 변화하는 일도 없다. 다만 이러한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분류는 접미사와 어미를 모두 후치사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에 분류가 가능한 것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설명하지 않고 접사를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로 나누고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단어 형성의 과정에서 설명한 접사는 모두 파생 접사로 새로운 단어 형성과 관련되지만 어미는 새로운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단어 형성에서 어미는 접사에 포함될 수 없다.

◆ 단일어

단어 내부에 어근이 하나만 존재하는 단어를 이르는 말이다.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일어가 되며, 여러 개의 형태소가 모인 단어라 할지라도 그 형태소 중에서 어근이 하나뿐이라면 그 단어는 단일어에 해당한다. (예 : 먹다 - 먹+다, 형태소 : 2개, 어근 : 먹-, 어미 : -다 ⇒ 단일어)

◆ 복합어

단어 내부에 어근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단어나, 접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이르는 말이다. 이 때 접사의 경우에는 파생 접사만 해당하고 굴절 접사의 경우에는 접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합성어

복합어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어근이 모여 하나의 단어를 이룬 경우를 말한다.

◆ 파생어

복합어 중에서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이르는 말이다.

◆ 접미사

파생어에서 어근의 앞부분에 붙은 파생 접사를 이르는 말이다.

◆ 접두사

파생어에서 어근의 뒷부분에 붙은 파생 접사를 이르는 말이다.

◆ 반복 합성어

같은 말이 중복되어 쓰여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합성어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반복 합성어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나타내는 합성 부사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하루’처럼 명사가 반복하여 쓰여서 합성 명사나 합성 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날그날’과 같이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그날’이라는 합성어가 반복되어 ‘그날그날’이라는 합성 명사나 합성 부사를 만들기도 한다.

품사론

단어들을 품사에 따라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형태론의 연구 범위는 주로 단어 이상을 넘여가기 어렵다. 이러한 형태론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품사에 관한 내용이다. 학교 문법에서도 품사론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서 심화 선택과목의 ‘문법’에서뿐만 아니라 국민공통과목인 ‘국어’에서도 다루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내용을 매우 어려워 하고 실제로 왜 이런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냥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니 배우기는 하는데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국어학에서 품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단어를 기본 단위로 하는 형태론에서 담당하는데 형태론에서 다루는 단어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말 어휘수는 사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만에서 45만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각 단어를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을 연구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 국민 모두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국민 중 몇몇 사람을 뽑아서 연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표집을 선택하여 연구한다고 해도 그 표집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 성별, 연령 등에 치우침 없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표집을 얻기 위해 국민을 특정한 유형에 따라 나누고 그 유형별로 일정한 표집을 선택하여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형태론에서 품사를 나누는 것은 후자의 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단어를 모두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 연구한다고 해도 복잡성만 커질 뿐, 국어 단어의 특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단어를 특정한 유형에 따라 나누고 그 유형에 속한 단어들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품사론 연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능, 형태, 의미’이다. 결국 품사론은 우리말 단어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연구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품사 분류의 방식이 학자마다 어떻게 다른가?

- 일반적으로 품사(品詞)란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앞에서 이미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기능, 형태, 의미’라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주장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는 형태소나 낱말이 문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한데 묶어나 가르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주어, 서술어, 수식어 따위 기능 성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범주를 가른다는 것이다.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형태적 특성 곧 어형 변화나 굴절 따위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사나 문말 형태 따위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누는 것이다. 의미를 기준으로 한 분류란 그 낱말이 지닌 의미 특질을 바탕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인가, 움직임이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인가 따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한 품사의 분류는 학자마다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자들이 주장한 품사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품사분류										
학교문법(1991)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최현배(1937)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	매김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
이희승(1956)	명사	대명사	존재사	동사	형용사	곤형사	접속사	부사	감탄사	조사
이승녕(1956)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주시경(1910)	임	곳(중결)		움	엇	언	잇(접속사)	억	놀	것
김윤경(1948)	임씨	맏씨(중지사)		움씨	얼씨	언씨	잇씨	억씨	녹씨	것씨

우리말 전통 문법의 품사 분류는 조사나 문말 형태(어미) 따위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른바 분석, 절충 및 종합 체계이다.

① 분석주의 : 위 표의 주시경(1910)에서 보인 품사 분류가 대표적인 것인데,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접속 형태 ‘잇’ 그리고 문말 형태 ‘끗’ 따위도 모두 독립된 품사로 인정한다. 즉, 어미와 조사를 다른 낱말과 대등하게 독립된 단어로 보고 품사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 분석 체계는 의존 형태인 문법 요소들의 중요성을 한결 돋보이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말이 지닌 첨가어로서의 특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② 절충주의 : 앞의 분석 체계에서 조사만을 품사로 인정한 것이다. 문말 형태는 모두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동사의 어미로 처리한다. 분석 체계에서의 ‘것’만은 조사 또는 토씨라 이름붙여 품사로 인정하고 ‘잇’이나 ‘끗’에 해당하는 문법 요소는 용언의 부속 어미로 처리하여 버리고 만 것이다. 절충 체계는 최현배(1937)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며, 그 뒤 박창해(1946), 이희승(1956), 정인승(1956) 그리고 현행 학교 문법 외 거의 모든 문법서가 이 절충 체계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절충 체계는 우리말이 지닌 첨가어로서의 특질과 굴절어인 인구어가 지닌 특질을 혼합한 것으로서 이론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

③ 종합주의 : 조사와 어미를 모두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굴절 어미로 처리한다. 어미뿐 아니라 조사도 독립된 품사 자격이 없고 앞 체언에 부속되는 요소로서 격변화 또는 어형 변화에서 나타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 체계는 정열모(1946)에서 비롯되었으며 주요 품사로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및 감동사의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체계는 우리말을 서구의 굴절어와 같은 차원에서 다룬 것으로서 문제점이 많다.

- 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이다’를 조사로 보는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흔히 ‘-이다’를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조사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 조사는 불변어라는 일반적인 특징과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다’를 ‘지정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두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정사설’의 근거 - 최현배, 박승빈

첫째, ‘-이다’가 없이 앞선 체언만으로는 문장의 기술 기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이다’의 ‘이’가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임의적인 생략으로 받침을 가진 체언에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형태소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시제 관련 형태소는 용언에 붙는 요소인데 ‘이다’의 경우에도 시제 관련 형태소와 함께 쓰인다.

넷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용언의 특성이자 조사의 특성이 아니다.

2. ‘서술격 조사설’의 근거 - 정인승, 고영근·남기심

첫째, 일반적으로 체언에 결합하는 것은 조사이며 이것이 서술어로 쓰인다면 서술격 조사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다’는 주어에 대한 풀이, 즉 서술의 기능은 없고 서술어로서의 표지 기능만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접미사 중에도 활용을 하는 것이 있으므로(－스럽다, －답다, －랴다) 조사의 활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

일부 학자들이 ‘있다’, ‘계시다’와 ‘없다’를 존재사라는 독립 품사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용언이라고 하면 서술격 조사를 포함하여 동사와 형용사로 나뉜다. 그런데 ‘있다, 계시다, 아니다’의 경우에는 이를 ‘존재사’라는 품사로 따로 인정하려고 한 학자들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용언들이 일반적인 동사나 형용사와 그 특징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고 그 특징은 바로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존재사에서는 동사의 특성과 형용사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존재사의 동사적 특징

첫째, 존재사는 움직임과 관련된 일부 부사와는 어울리는 반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와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 요즘 편히 계신지요? *사람들이 대단히 있다. cf) 요즘은 편히 주무신다.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둘째,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과 같은 서법 형태와 어울려 쓰인다. -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나와 좀 함께 있자, 난 앞으로 그곳에 있으마 cf) 여기서 먹어라, 함께 놀자, 나는 아무것도 안 먹으마, *너는 예뻐라, *우리 같이 예쁘자, *우리는 앞으로 예쁘마

셋째, 의도법과 관련하여서도 그 쓰임에 문제가 없다. - 난 여기에 안 있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여기에 있으려고 한다. cf) 나는 여기서 안 떠나겠다. 나는 여기서 자려고 한다.

넷째, 존재사는 그 활용이 동사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난 여기 있는데, 아버지는 회사에 계신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cf) 내가 가는데, 아버지는 안 가신다. 딸이 예쁜데 엄마는 안 예쁘다

2. 존재사의 형용사적 특징

첫째, 존재사가 형용사와 관련된 서법 형태와 어울리는 경우가 있다. - 집에 철수가 있다(없다). cf) 철수가 착하다, 영희가 예쁘다. *철수가 가다, *영희가 놀다

둘째, 시제와 상의 관계에서 형용사의 특징이 드러난다. - *그는 여기에 있는 책을 보았다. *그는 여기에 없는 책을 보았다. cf) 그는 여기에 놓은 책을 보았다.

셋째, ‘있다’와 ‘계시다’는 보조 형용사로 쓰인다. - 그는 궁전에서 살고 있다. 그는 아직도 살아 있다.

- 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서술어를 동사라고 해도 상관없는가?

학생들이 영문법의 영향으로 ‘서술어’라는 개념으로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에서는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경우 차이가 없으나 서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형용사가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be 동사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직접적인 서술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서술의 개념을 동사가 전적으로 담당하므로 이 두 개념이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말에서는 형용사도 동사와 별다른 차이 없이 그대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어의 개념으로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말에서 ‘서술어’는 문장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문장 성분과 관련된 용어이고, ‘동사’는 그 문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한 품사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술격 조사는 용언인가?

일반적으로 용언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동사와 형용사를 떠올린다. 용언을 문장에서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의 기능이 단지 동사와 형용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도 체언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서술이 가능한 품사의 경우에는 활용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서술격 조사는 동사, 형용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언이라는 개념 속에는 동사와 형용사뿐만 아니라 서술격 조사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사람, 두 사람’에서 ‘한’과 ‘두’는 수사인가?

분명히 ‘한’과 ‘두’는 의미상을 숫자와 관련된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수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단어의 경우에는 조사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홀로 쓰이지 못하고 체언이 그 뒤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합이 불가능하고 자립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체언, 즉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미적으로는 수사와 관련이 있으며, 그 형태상으로도 수사와 유사성을 보이지만 그 문법적 특징이 수사와는 다르므로

로 이러한 단어들은 관형사로 분류하고 대신 그 하위 분류에서 ‘수 관형사’로 규정한다.

우리말 품사에는 왜 접속사를 설정하지 않는가?

학생들이 품사를 배우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영문법에서 배운 접속사가 우리말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말에서는 접속사라는 품사를 설정하지 않는 것인가? 사실 과거 학자들 중에서는 품사를 분류하면서 접속사라는 품사를 설정한 경우도 있다. 굳이 접속사라는 품사를 설정하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접속사라고 하면 보다 쉽게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린다. 물론 우리말이 알타이 어족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말과 알타이 어족의 공통점 중에서 접속사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로 들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접속사를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접속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그 형태상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나’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그러하다’에서 형태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영어의 접속사는 그 어원적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우리말의 접속 부사가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 반면에 영어의 접속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 말들을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는 것은 품사의 종류를 늘려서 품사 체계만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 지정사나 존재사라는 품사를 학교 문법에서 설정하지 않은 것도 학교문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복잡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그 단어들의 문법적 특징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돌림자를 이용하여 품사와 문장성분 구분하기

· 개요 : 품사와 문장성분의 구분을 통해 품사와 문장성분을 혼동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 방법

① ‘품사’는 ‘-사’의 형태로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② 한자로 ‘品詞’라고 적고 각 품사의 이름도 ‘詞’로 적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품사의 하위 분류는 문장성분과 혼동하는 일은 막는다.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形容詞……)

③ 한자로 죽을 ‘死’를 쓰면서 품사는 문장성분과 달리 죽어도 변하는 일이 없음을 강조한다. → 품사의 통용 등의 예가 있으나 하나의 단어에 대하여 그 품사는 문장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품사와 문장성분의 차이점이다.

④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과 같이 “한번 명사는 영원한 명사, 한번 동사는 영원한 동사”와 같은 방식으로 특징을 이해시킬 수도 있다.

⑤ 마지막으로 하나의 단어가 항상 같은 품사가 되며 문장성분은 문장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예로 보인다. → 문장성분의 경우에는 조사까지 포함하여 이르는 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품사

단어 : 품사 문장 성분

명사 품사가 무엇일까? 주어

오늘 우리는 품사를 공부한다 목적어

문장성분은 품사가아니다 보어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것이 품사다. 서술어

문법적 특성은 품사에 달려있다. 부사어

품사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된다. 관형어

품사! 정말 중요하군. 독립어

대응 관계로 고유명사의 개념 이해하기

· 개요 : 고유 명사는 그 대상과 그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 1:1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보통 명사와 다르며, 그 관계가 어떤 문장에서 변화가 없음이 대명사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여 고유 명사의 특징을 이해한다.

· 방법

①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예> 다음 사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자.

② 각각의 대상과 그것을 부르는 이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예> 각각의 경우에 대상과 그 이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③ 먼저 사진의 경우 ‘개:사진’이 ‘1:多’의 관계를 이루지만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모두 ‘1:1’의 관계가 있음에 유의하여 학생들에게 고유 명사의 특징을 설명한다.

④ 다음으로 대명사와 고유 명사의 차이점을 확인하여 학생들이 고유 명사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예>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바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 어제 철수는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나. 그저께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 달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훌륭한 장수이다. 그러나 그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라. 이순신 장군은 왜적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는 명장이었다.

‘그’는 각각 ‘가’, ‘나’, ‘다’에서 지시하는 인물이 다르다. ‘가’의 경우에는 ‘철수’에 해당하고, 내용으로 보아 ‘나’의 ‘그’는 ‘철수’이기는 어렵다. 또한 ‘다’의 ‘그’는 ‘이순신 장군’이다.

예> ‘다’와 ‘라’의 ‘이순신’ 장군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가?

⑤ 대명사의 경우에는 고유 명사와 같이 대상과 그 이름이 1:1의 관계를 이루지만 문장에 따라서 그 대상은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고유 명사의 경우에는 언제가 가리키는 대상에 변화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음을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한다.

· 주의 : 이러한 분석에 사용된 예에는 의존명사나, 관형사의 예는 제외한다. 이 두 경우는 품사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된 후에 다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수 관형사와 수사 구분하기

· 개요 : 수 관형사와 수사는 의미와 형태에서 관련성이 있으나 각각 관형사와 체언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문법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수 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한다.

· 방법

① 수 관형사는 의미는 숫자와 관련이 있는 말이고 수사와 형태가 같은 것도 있지만 관형사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 관형사는 자립성이 약하여 홀로 쓰이지 못한다.

예>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지 못한다.

예>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데에 쓰인다.

② 수 관형사와 수사를 각 품사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예문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그 차이점을 확인한다.

예> 수 관형사 수사

사과를 몇 개 먹었나? *한 여섯에서 다섯을 빼면? 하나

*소 다섯 마리가 있다. 소 다섯이 나란히 서 있다.

모두 운동장에 일곱 사람이 있다. 운동장에 있는 사람이 일곱 이다.

문장을 쪼개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 구별하기

· 개요 : 하나의 문장에 용언이 두 개 이상이 나란히 쓰인 경우 이어진 문장인 경우와 하나의 문장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쓰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보조 용언의 경우 본용언과 형태가 같은 것이 많아서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형태가 같음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 용언이 본용언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방법

① 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두 용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접속 조사의 예를 들어 그 관계를 파악한다.

예) 철수와 영수가 웃는다.

철수가 웃는다.

영수가 웃는다.

철수와 영수가 닮았다.

*철수가 닮았다.

*영수가 닮았다.

② 두 문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것이고 하나는 원래부터 하나의 문장이다. 용언이 쓰인 문장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로 보조 용언과 본용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 경희는 이번에 실컷 웃었다.

경희는 이번에 실컷 웃었다. ?경희는 이번에 실컷 보았다. (불가능)

경희는 약을 먹고 잤다.

경희는 약을 먹었다.

경희는 잤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 용언과 본용언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보조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 철수가 시험을 보았다. (본용언)

철수가 그를 시험해 보았다.(보조 용언)

→ 철수가 그를 시험했다. *철수가 그를 보았다.

철수가 벌을 잡아서 보았다.

철수가 벌을 잡았다.

철수가 벌을 보았다.

어말어미와 선어말 어미의 차이점 파악하기

· 개요 : 우리말은 교착어로서 다른 언어에 비하여 어미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 용언에서 어말어미와 선어말 어미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실제 단어를 통해 두 어미를 구분한다.

· 방법

①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을 결합과 대치의 원리를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한다.

예> 내가 도둑을 잡았_ㄴ구나. → 잡-/았-/ㄴ-겠-/ㄴ-구나

우리가 지금 뛰었_ㄴ음을 아무도 모_ㄴ다. → 뛰-/ㄴ-었-/ㄴ-ㄱ

진수가 합격을 하였_ㄴ으면 정말 좋_ㄴ겠다. → 하-/ㄴ-었-/ㄴ-(으)면

오늘 하루 실컷 놀_ㄴ고 춤춰_ㄴ도 좋_ㄴ다. → 놀-/ㄴ-고

일요일 오후에는 정말 늘어지게 쉬_ㄴ고 싶_ㄴ다. → 쉬-/ㄴ-고

② 분석한 형태소에서 어간을 제외한 어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어미가 어말 어미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를 나타내는 말이 ‘語末[단어의 끝]’임을 학생들이 파악하도록 한다.

③ 어말 어미 앞에 있는 형태소도 어간이 아니므로 어미임이 분명한데 무엇으로 이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선어말 어미’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 ‘선어말 어미’의 위치는 단어 중 어디이며, ‘선어말’의 ‘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어말 어미를 기능에 따라 이름 지어 주기

· 개요 : 어말 어미를 다시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누어 설명하여 구별하기

· 방법

① 용언의 가장 마지막에 쓰인 형태소, 즉 어말 어미 중에서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어미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러한 어미의 특징에 따라 학생들이 이름을 짓게 한다. 학생들의 지은 이름과 종결 어미의 뜻을 관련시켜 이러한 어미의 기능을 학생들이 파악하도록 한다.

예> 철수가 짐을 들(다) → 일반적 서술 :

철수가 짐을 들(다) → 감탄 :

철수가 짐을 들(다) → 의문 :

철수가 짐을 들(다) → 시김 :

철수가 짐을 들(다) → 부탁 :

예> 이렇게 문장을 끝맺는 데 사용되는 어말 어미를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② 연결 어미의 경우에도 종결 어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예> 다음 문장을 적절한 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완성해 보자.

철수가 짐을 들(다) + 철수가 길을 건넌다. →

철수가 짐을 들(다) + 나도 짐을 들겠다. →

철수가 짐을 들(다) + 있다. →

예> 이렇게 문장이 다른 단어나 문장과 이어지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어말 어미를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③ 용언이 문장을 서술하는 기능 이외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찾아 그 기능은 무엇이며 어떤 어미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다음 문장에서 서술어 이외의 동사나 형용사를 찾아 형태소별로 분석하시오.

예쁜 꽃은 철수의 것이다. → 예쁘-/ㄴ-ㄷ

국화는 가을철에 예쁘게 핀다. → 예쁘-/ㄴ-게

나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 돌-/ㄴ-아/오-/ㄴ-기

예> 찾아낸 동사나 형용사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생각해 보고 그 단어는 주로 어떤 품사인지 확인해 보자.

예쁜(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 새 → 관형사) 꽃은 철수의 것이다.

국화는 가을철에 예쁘게(잘, 빨리, 너무 → 부사) 핀다.

나는 다시 돌아오기(행복, 평화, 승리, 우승→명사)를 기대한다.

예> 이러한 용언에 쓰인 어말 어미는 결국 용언을 그 자리에 주로 쓰일 수 있는 품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말 어미에도 이름을 지어 줘 보자.

1. 다음 보기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ㄱ) 모으다, 꼬다, 담그다, 쓰다

(ㄴ) 돌다, 길다, 질다, 놀다

(ㄷ) 짓다, 걷다[步], 줍다, 흐르다, 푸다, 이르다[到], 하다, 빨갳다

(ㄹ) 웃다, 걷다[收], 잡다, 따르다, 주다, 치르다, 가다, 놓다

1-1. (ㄱ)과 (ㄴ)의 용언을 아래 표에 따라 어미와 결합시켜 보고 그 활용의 특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가) (ㄱ)의 용언의 형태적 공통점은 무엇이고 활용상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ㄱ)에 해당하는 용언은 모두 어간의 말음이 ‘ㄹ’로 끝나고 있으며 어미 ‘-아/-어’와 붙을 때 어간의 ‘ㄹ’이 탈락한다.
(나) (ㄴ)의 용언의 형태적 공통점은 무엇이고 활용상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ㄴ)에 해당하는 용언은 모두 어간의 말음이 ‘ㄷ’로 끝나고 있으며 어미 ‘-니’와 붙을 때 어간의 ‘ㄷ’이 탈락한다.
(다) (ㄱ), (ㄴ)과 같은 형태를 가진 용언 중 이와 다른 활용을 하는 예가 있는가?
(ㄱ)과 (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용언은 이와 같은 활용을 하고 있어서 예외가 되는 예가 없다. 다만 어간의 말음이 ‘ㄹ’인 경우에는 ‘ㄹ’로 끝난다고 해도 활용상에 다른 특징을 갖는다.
(라) 이러한 용언의 활용은 규칙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불규칙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형태를 가진 용언은 그 활용에서 모두 어간의 ‘ㄹ’이 탈락하거나 ‘ㄷ’이 탈락하므로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적인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

1-2. (ㄷ)과 (ㄹ)의 용언을 아래 표에 따라 어미와 결합시켜 보고 그 활용의 특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가) 형태상 유사한 어간을 가진 (ㄷ), (ㄹ)의 용언에서 활용상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ㄹ)에 해당하는 용언은 ‘치르다’를 제외하면 어미와의 결합에서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는 예가 없다. 또 ‘치르다’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ㄹ’로 끝나는 어간을 지닌 용언과 같은 활용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ㄷ)의 경우에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어간이나 어미가 탈락하거나 변한다. ‘짓다’에서는 어간의 ‘ㅅ’이 탈락하고, ‘걷다[步]’에서는 어간의 ‘ㄷ’이 ‘ㄱ’로 바뀌며, ‘줍다’에서는 어간의 ‘ㅂ’이 ‘우’로 변하였다. 또한 ‘호르다’의 어간 ‘르’는 ‘ㄹㄹ’로 변하였으며, ‘푸다’에서는 어간의 ‘ㅌ’가 탈락하고, ‘이르다[到]’에서는 결합하는 어미 ‘-어’가 ‘-러’로 변하였다. ‘하다’의 경우에도 어미가 ‘-여’로 바뀌었으며, ‘빨강다’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였다.
(나) (ㄷ), (ㄹ)과 같은 형태를 가진 다른 용언들은 어떠한 활용을 하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태에 변화가 없는 (ㄷ)과 같은 활용을 하는 예도 있고, (ㄹ)과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는 예도 있다. 다만 ‘하다’의 경우에는 ‘여’라는 어미를 갖는 예는 ‘하다’와 붙을 때뿐이다.
(다) (ㄷ)과 (ㄹ) 중 한쪽을 규칙 용언, 다른 한쪽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무엇이라고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정확하게 규칙과 불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용언을 모두 추출하고 그 중에서 어느 쪽의 활용이 더 우세한지를 확인하여 우세한 쪽을 규칙으로, 그렇지 않은 쪽을 불규칙으로 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러한 형태의 용언이 몇 개나 있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그리고 용언도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므로 확실한 그 수를 정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쪽을 규칙으로 변하는 쪽을 불규칙 활용으로 정할 수 있다.

(2)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
해당 교육 과정 내용
해당 교과서 단원

7-(3) 품사의 분류 기준과 품사의 특성을 안다.
생활 국어 3-2 5. 품사의 종류
(1) 단어의 분류
(2) 품사의 특징

① 관련 내용 정리
- 단어의 분류 관련 내용

- 일반적인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소개
- 분류 과정에서 기준이 의미, 형태, 기능임을 확인하는 내용 포함
- 품사의 특성 관련 내용
- 체언은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형태와 기능상 특징은 교과서에서 설명 없이 제시함
- 용언은 의미와 형태 중심으로 나누고 기능은 교과서에서 설명 없이 제시함
- 수식언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의미와 형태에 관한 설명은 없음
- 관계언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의미와 형태에 관한 설명은 없음
- 독립언은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형태에 관한 설명은 없음

② 7차 문법 교과서와의 차이점 및 특징
- 각 품사의 하위 분류 내용이 중학교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품사 분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중학교 교과서에는 포함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중학교 교과서는 각 품사의 개념 설명 위주로 서술되어 있음

〈질문 1〉 ‘오늘’의 품사는 부사인가요, 명사인가요?

<답변> ‘오늘’의 품사는 부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 여러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물론 언어의 자의성에 의해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형태가 우연히 같은 동음이의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오늘’이 부사로 쓰이는 경우와 명사로 쓰이는 경우 근본적인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음이의어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품사의 통용이나 ∅파생접사가 붙어 품사가 바뀐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품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품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가 붙는 특징이 있고, 부사는 주로 문장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며 보조사가 결합하는 일이 있습니다.

- ① 철수가 오늘 일찍 왔다.
 - ②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위와 같은 예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면, ‘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오늘’은 부사이고,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오늘의’의 ‘오늘’은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 중에는 부사와 명사로 쓰이는 말들이 더 있는데 ‘어제, 모레, 그제’ 등이 그 예입니다.

〈질문 2〉 ‘만큼’은 왜 어떤 때는 조사가 되고 어떤 때는 의존 명사가 되나요?

<답변> 우리말의 만큼은 쓰이는 자리가 용언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체언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품사가 다르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만큼’이 쓰이는 자리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① 자신이 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 ② 그가 당신만큼은 안 되되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나다.
- 위 예문에서 첫째 예문의 경우 ‘만큼’은 의존 명사에 해당하는데 그 바로 앞에 용언이 쓰였고 그 용언의 어말어미는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언은 체언과 결합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데 ‘만큼’의 바로 앞에 그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예문의 경우 ‘만큼’의 앞에는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의 체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단어는 합성어가 아닌 경우에 조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명사가 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명사가 온다면 그 사이에 조사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만큼’의 경우에는 그것이 쓰이는 자리에 따라서 품사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사의 특징은 주로 문장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부사 중에서 일부

는 체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로’라는 부사입니다. ‘바로’는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어로 쓰이는 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정말로 너는 모든 문제를 바로 맞히는구나.

② 바로 철수가 이 일은 성공적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데 첫째 예문에서 ‘맞히는구나’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가 둘째 예문에서는 ‘만든’이나 ‘장본인이다’라기보다는 ‘내가’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라는 대명사를 수식하여 마치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경우에는 앞에서 하나의 형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품사를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두 경우에 모두 부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란히! 바로!”와 같은 예문에 쓰인 ‘바로’의 경우에는 감탄사나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 감탄사와 독립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동사와 서술어가 하나는 품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말인 것과 같이 감탄사는 품사명이고 독립어는 문장 성분을 이루는 말입니다. 물론 감탄사가 문장에서는 대부분 독립어로 쓰입니다. 감탄사를 문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독립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문장에서 주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어의 기능을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감탄사와 독립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감탄사가 독립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어머나’는 ‘어머’를 강조한 감탄사이다.

② 여자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 흔히 쓰는 말이 ‘어머나’이다.

위의 예문에서 첫째 문장에 쓰인 감탄사 ‘어머나’와 ‘어머’는 각각 주어와 ‘강조하다’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둘째 문장에서 ‘어머나’는 서술어이다. 그러므로 감탄사라는 품사명을 써야 할 자리에 독립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질문 5〉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에 학교문법에서 부사형 어미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거의 학교문법에서는 부사절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사형 어미는 따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7차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부사형 어미도 인정하고 부사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② 오늘도 되는 일이 없이 하루를 보낸다.

위의 두 문장에서 '똑같이' '없이'는 그 주어가 있으며, 서술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자신의 부사어와 주어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서술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부사절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다’나 ‘없다’에 붙은 ‘-이’는 '같다, 없다, 다르다' 등의 뒤에만 쓰이기 때문에 여러 어미에 붙는 일반적인 어미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파생접사로 간주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미는 본포의 제약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어적 기능을 갖는 파생접사가 절을 이룬다는 점에서 예외적이기는 하나, 위의 예들은 접미사(파생접사) ‘-이’에 의해 이루어진 부사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사절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 즉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형태소를 부사형 어미로 인정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부사형 어미로 보아야 합니다.

③ 영희가 예쁘지 않다.

④ 정희가 빵을 먹어 버렸다.

⑤ 철수가 집에 가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조적 연결어미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은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의 관계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조 용언이 쓰인 문장은 단문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사절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⑥ 수재민들에게 세금이 면제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했다.

⑦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위의 예문에서도 ‘-도록’과 ‘-게’는 일반적으로 종속적 연결 어미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러한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도 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역시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의 관계가 아니라 이어진 문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부사절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학교 문법에서 부사형 어미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의 학교 문법에서 부사형 어미를 설정하면서 전성 어미의 설명은 한결 완성도 있게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장 관계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보조적 연결 어미로 보고 있는 ‘-아/어, -고, -게, -지’의 어미가 문제가 됩니다.

• 위 기사를 읽고 ‘초코파이’는 고유 명사인지 보통 명사인지 모둠별로 의견을 발표하여 보자.

정답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판결은 ‘보통 명사’라는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이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표’와 ‘상품명’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시킨 후에 기사를 읽도록 하는 것도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표(商標) - "경제"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 예>유명 상표/외래 상표/국산 상표가 붙다/고유 상표를 등록하다.

상품명(商品名) - 사고파는 물품의 이름.

- 고유 명사로 보는 입장

고유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과는 처음으로 초코파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사용한 회사이며, 소비자들도 대부분 초코파이라고 하면 제과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마도

제과가 생산한 제품에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도 이러한 ○○제과의 초코파이가 갖는 상표적 특징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A라는 사람이 만든 옷이 잘 팔린다고 해서 너도나도 그 사람 이름을 걸고 옷을 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초코파이가 보통 명사라면 이는 마땅히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진 국어사전에도 초코파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초코파이는 ○○제과에서 만들어 낸 독창적인 히트 상표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초코파이를 보통 명사로 보기는 어렵다.

- 보통 명사로 보는 입장

보통 명사라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가진 대상이 여럿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머리 속에서 떠올려 보자. 초코파이라고 하면 크림 속이 들어간 빵을 초콜릿으로 감싼 것이라는 생각이 우선 떠오른다. 특정 회사의 제품만 떠오르는 것도 아니다. 이는 초코파이가 초기에는 고유 명사적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는 거의 보통 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초코파이를 ○○제과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코파이는 초콜릿을 바른 여러 과자류에 두루 쓰이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상표가 아니라 상품이 된 것이다. 제과공장의 명칭은 상표이지만 그 물건 자체인 초코파이는 상품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유 명사보다는 보통 명사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위 기사를 바탕으로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보자.

고유 명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복수로 표현을 한다든지, 수와 관련된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것이 어렵다. “신라들이 삼국을 통일했다.”나 “세 영수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말은 매우 어색하다. 물론 고유 명사를 복수로 표현하면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우리 학교 발명반은 에디슨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에서 ‘에디슨들’은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처럼 발명에 재능이 있거나 발명을 위해 노력하는 발명가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개체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모든, 새’ 등과 같은 관형사가 앞에 쓰이는 것이 어색

하고 혹시 쓰이는 경우에는 역시 보통 명사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그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 한라산은 정말 크군!”이라든지 “모든 영수가 모임에 참석했다.”와 “우리 군대에는 새 이순신이 필요하다.”가 그 예이다.

• 위의 ‘초코파이’와 유사한 예를 주위에서 더 찾아보자.

하나의 상표였던 것이 상품명이 되어 보통 명사로 쓰인 경우는 꽤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포와 크리넥스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프차도 마찬가지이다. 지프(jeep)는 원래 상품명으로 사륜 구동의 소형 자동차를 말하는데 미국에서 군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호치키스(Hotchkiss) 또한 원래는 그 고안자인 미국의 발명가 호치키스의 이름을 딴 상표 이름이지만 지금은 ‘스테이플러’라는 상품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가 복사하는 방식이나 복사기라는 의미로 쓰는 제록스(Xerox)도 원래는 미국 사무용 복사기의 상품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유 명사의 상표명이 보통 명사의 상품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말에는 교사용 지도서가 밝히고 있는 ‘마당놀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러한 논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각종 원조집 논쟁이 이러한 예라 할 것이다. ‘장충동 족발집’, ‘신당동 떡볶기’, ‘안흥 찜뽕’ 등등에서 서로 자신이 원조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가게의 간판을 문제 삼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국어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하여 모듈별로 탐구하여 보자.

너, 자네, 그대, 당신1, 너희, 여러분

- 위의 2인칭 대명사들을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 국어에서는 상대방을 부를 때 실제로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여 보자.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여 보자.

실제로 2인칭 대명사들이 쓰이기보다는 호칭 없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화의 대상이 눈 앞에 있으므로 굳이 호칭을 넣지 않아도 담화맥락에서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친족명이 많이 쓰인다는 것은 우리말의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친족명을 사용하여 부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집성촌 형태의 마을에서 생활해 온 전통과 관련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집성촌에서는 대부분이 친족 관계가 설정되어 친족어를 호칭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러한 집성촌에서의 전통이 확대된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직함을 부르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은 친족명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공적 자리에서 호칭을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중심의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 활동으로 맺는 인간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사회적 직함에 따른 호칭이 현재 공적인 관계에서는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우리말에서는 영어처럼 ‘내 아버지, 내 집, 내 학교, 내 나라’로 하지 않고 복수형을 써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나라’로 하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듈별로 발표하여 보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학생들이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 용례를 찾아보고 그 쓰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른 친구에게 ‘우리 아버지 이번에 승진하셨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이런 경우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담화 상황에 존재하는 것은 말하는 화자 ‘나’와 내 말을 듣는 친구 ‘너’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나’와 ‘너’를 함께 이르는 말이 아니다. 분명 ‘우리’는 복수의 의미로 쓰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화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가족 정도로 그 경계가 한정된다. 결국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단순히 ‘나’와 ‘너’의 집합으로 볼 수만은 없다. 또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둘 이상이 공유되는 대상에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신랑’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과연 ‘신랑’은 누구와 공유되는 것인가. ‘우리’를 울타리에서 온 말로 본다면 이는 일종의 경계를 설

정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경계가 화자와 청자, 화자의 가족, 또는 그냥 화자 자신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주로 ‘우리’와 함께 쓰이는 ‘아버지, 집, 학교, 나라’라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경계는 자신 이상으로 확장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말에서 ‘우리’의 의미 및 사용 방식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우리는 앞의 활동에서 ‘우리’라는 말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활동은 이러한 경계를 실제 상황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다. 세 인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설정하는 경계를 학생들이 표시해 보도록 한다면 학생들도 이러한 차이를 명백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의미도 참고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3 - (대)①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우리가 나아갈 길/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어머니, 우리 오늘 도봉산에 갈까요?/선생님, 우리 과 경쟁률이 제일 높대요. ②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우리 먼저 나간다. 수고해라./언젠가 자네가 우리 부부를 초대할 적이 있었지./우리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리시오? ③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우리 엄마/우리 마누라/우리 신랑/우리 아기/우리 동네/우리 학교 교정은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다. ③③ 울04.②③저희01①②. [우리용가]

① 다음 예문에서 ‘이/가’, ‘을/를’의 성격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 본래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말이야.
- 너는 또 어찌자고 백화점을 갔니?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워 온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아닌 예문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주격과 목적격이 아니라는 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장의 서술어를 ‘아닌데’로 본다면 ‘사람은’은 보어가 되고 주어는 문장에 나타나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본래가’가 주어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본래’는 ‘아니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 문장도 동사를 ‘갔다’라고 본다면 간 사람이 ‘너’이므로 주어는 ‘너는’이 되고 백화점은 간 장소를 나타내므로 ‘백화점을’은 부사어가 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목적어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 두 문장에서 주격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각각의 격을 표시하는 격조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② 서술격 조사 ‘이다’에 대하여 모듈별로 탐구하여 보자.

- ‘이다’가 다른 조사들과 같은 점을 찾아보자.
‘이다’는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체언이나 체언상당어구에 붙는다. 그리고 격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붙은 단어가 문장에서 일정한 격을 설정하도록 하는데, 서술격 조사로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결합한 단어가 서술어가 되도록 기능한다.
- ‘이다’가 다른 조사들과 구별되는 점을 찾아보자.
서술격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조사들과 달리 활용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사들은 그 형태의 바뀔이 없기 때문에 불변어에 속한다. 그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언들처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그러므로 조사 전체를 불변어라고 할 수 없으며,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용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다’를 현재는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고 있다. 위 활동을 바탕으로 ‘이다’에 대하여 설명한 뒤, 적절한 다른 이름을 붙여

보자.

이 활동은 일단 학생들이 이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그 방향이 나뉠 수 있다. 일단 ‘조사’임을 인정하면서 ‘서술격’이라는 단어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조사’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품사명을 쓸 것인지 하는 것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술격 조사 ‘이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활동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조사에 대하여 따로 품사를 설정하고 ‘지정사’라고 이름을 붙인 바 있다. 이는 ‘이다’가 일반적인 조사와 달리 가변어이고 활용을 하며 선행 성분을 지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활용을 하는 어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미는 체언과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없다. 대부분의 어미는 용언의 어간이나 다른 어미에 결합하고,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가 필요하다. ‘체언다’는 말이 안 되고, ‘체언이다’가 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다’ 자체를 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서처럼 ‘매개 모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사실 매개 모음이라는 답을 할 학생은 거의 없겠지만) 그 쓰임이 음운 조건에 따라 상보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경우가 있어서 매개 모음으로 보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매개 모음인 ‘으’의 경우 선행어 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상보적이며 임의적인 경우는 없다(먹으니, 잡으니, 보니, 부니).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다’를 용언화 접미사로 보는 입장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접미사로 볼 경우 그 결합에 의한 생산성이 다른 접미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접사는 결합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다’의 경우에는 체언이기만 하면 고유어와 한자어에 관계 없이 결합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어에는 동사 파생 접사 ‘-이다’가 존재한다. ‘반짝이다, 출렁이다, 속삭이다, 움직이다’가 그 결합의 예인데 이러한 경우에 ‘학생이다’의 ‘이다’와 같은 접미사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① 다음의 (가)와 (나)의 ‘와’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여 보자.

(가)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나) 배는 사과와 다르다.

(가)의 ‘와’는 두 개의 문장, 즉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와 ‘나는 배를 좋아한다.’라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배를 좋아한다.’에서처럼 접속부사 ‘그리고’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접속조사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두 개의 문장을 접속시킨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서술어의 주어인 ‘배’와 차이를 보이는 대상을 나타내는 데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사과와’는 ‘다르다’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가 된다. 이러한 경우 ‘와’는 비교부사격 조사가 된다. 사실 이외에도 ‘와’는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에서와 같이 접속이나 비교가 아니라 상대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① 다음 예들을 자료로 보조사 ‘은/는’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 굴은 노랗다.
- 굴은 까서 먹고 배는 깎아서 먹는다.

• 두 문장에 쓰인 ‘은/는’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자.

“굴은 노랗다.”에서 ‘은’은 문장의 화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굴은 까서 먹고 배는 깎아서 먹는다.”에서 쓰인 ‘은’은 논의하고 있는 두 대상 ‘굴’과 ‘배’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즉 전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논의의 대상이 ‘굴’이라는 점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굴’과 ‘배’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데에 ‘은’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 ‘은/는’이 격조사가 아니고 보조사인 이유를 말하여 보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위의 문장을 보면 주로 ‘은’에 대해서 주격조사와의 차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격조사가 쓰인 일반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 각각의 격조사를 보조사 ‘은/는’으로 교체해 보면 이 조사가 격조사로 볼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철수가 영희를 순이에게 소개한다.

⇒ 철수는 영희를 순이에게 소개한다.

⇒ 철수가 영희는 순이에게 소개한다.

⇒ 철수가 영희를 순이에게는 소개한다.

⇒ 철수는 영희를 순이에게는 소개한다.

주격이나 목적격 자리에 ‘은/는’이 대신 들어간 경우와 부사격 자리에 ‘은/는’이 추가된 예가 보이는데 격조사는 겹쳐 쓰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주격이나 목적격에 두루 쓰인다는 점을 보아도 ‘은/는’은 격조사일 수 없다. 또한 ‘은/는’의 의미는 일정한 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철수는 소개한다.’와 ‘다른 사람은 소개 안 해도 영희는 소개한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도 순이에게는 소개한다.’라는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일반적인 격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 다음의 각 보조사들을 넣어 사용하여 보고, 각각 보조사의 차이를 모두 별로 설명하여 보자.

- 브루투스 너마저

- 브루투스 너까지

- 브루투스 너조차

- 브루투스 너도

위에 쓰인 보조사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로 있다. 우선 위에 쓰인 조사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 파악하도록 해보고 나중에 사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학생들이 이외의 다른 예문을 더 만들어 보면서 섬세한 의미를 차이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저 : (조) 『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막내마저 출가를 시키니 허전하다./노인과 어린이들마저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참)도 14.(참)까지03.(참)조차08.

□-까지 : (조)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①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앞에는 시작을 나타내는 '부터'나 출발을 나타내는 '에서'가 와서 짝을 이룬다.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청소를 한다./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동생을 역까지 바래다 주었다./그 병원은 열두 시부터 한 시까지가 점심 시간이다./내일은 8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한다./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으려고?/통일이 되기까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었다.《박영한, 인간의 새벽》 ②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밤도 늦었고 비까지 내리니 하루 더 묵고 가거라./저 말썽꾸러기가 시계를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전화기까지 망가뜨렸구나./너까지도 나를 못 믿겠니?/송편이 맛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좋구나./어머니는 노여운 표정까지 지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나는 무엇 때문에 이 엉뚱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이야기에 말려들어 갔을까?/너는 집을 나가면서까지 부모님 속을 태워야 하겠니? ③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봅시다./아이가 모형 비행기를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이 작은 시골에서 장관까지 나오다니./심 씨 편을 돕는 패와 김 씨 편을 돕는 패가 생겨서 차차 두 패가 서로 맞서서 시비를 하게까지 되었다.《김동인, 운현궁의 봄》 (참)도14.(참)마저.(참)조차08.

□-조차 : (조) 『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 『그는 편지는커녕 제 이름조차 못 쓴다./그렇게 공부만 하던 철수조차 시험에 떨어졌다./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한자는 쓰기도 어려운 데다 읽기조차 힘들다./너조차 가지 않겠다는 거냐?/그는 자기 자식들에게서조차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다./그녀와 헤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참)까지03. (참)마저.

□-도 : (조) 『체언류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①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옷감을 만져도 보았니?/친구와 영화를 보고 밥도 먹었다. ② 『주로 '...도 ...도' 구성으로 쓰여』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 『아기가 눈도 코도 다 예쁘다./나이 삼십에 집도 있고 차도 있다./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 ③양보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찬밥도 좋으니 빨리만 먹게 해 주세요./오늘까지 어려우시면 내일까지도 괜찮습니다. ④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그 사람은 낮 놓고 기억자도 몰라./시간이 없어서 세수도 못하고 왔다./월급을 많이 안 줘도 좋으니 일을 하게 해 주세요. ⑤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집 앞까지 갔다가도 그냥 왔지요./너는 신문도 안 읽니? ⑥놀라움이나 감탄, 실망 따위의 감정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달도 밝다!/성적이 그렇게도 중요한가?/그 말은 백 번도 더 했잖니?/에이, 맛도 없다./참, 사람도./서울에는 사람이 참 많기도 하지. (참)까지03.(참)마저.(참)조차08.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마저’가 ‘조차, 도, 까지’와 달리 [+극단성]보다는 [+마지막, 최종]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예문의 경우 ‘마저’나 ‘조차’의 사용이 어색해 보인다.

- 이번 시험에 철수도 합격했다며? 야, 정말 기쁘다.
- 이번 시험에 철수까지 합격했다며? 야, 정말 기쁘다.
- ?이번 시험에 철수마저 합격했다며? 야, 정말 기쁘다.
- ?이번 시험에 철수조차 합격했다며? 야, 정말 기쁘다.

① 다음 자료로 동사와 형용사를 탐구하여 보자.

친구들과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찍은 사진은 그 애의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충만한 봄내음, 친구들과의 악의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그 애의 졸업식 날은 왜 그렇게 추웠던지, 졸업식 때 찍은 사진에선 얼굴에 살짝 돋은 소름,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 가빠진 숨결, 빨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고 싶은 왕성한 식용, 추위와 가족들의 만족감이 자아내는 묘한 축제의 분위기를 눈앞에 또렷이 보고 느낀다.
- 박완서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 위 글에 나오는 용언을 모두 찾아보자.
-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조사하여 위 용언들을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하여 보자.

우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교사가 그에 추가하여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품사 구분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있다’와 ‘없다’의 경우는 활용의 특수성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는 다음 활동에서 다룬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과정)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둘째,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셋째, ‘의도’를 뜻하는 ‘-려’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 ‘-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못하면 형용사이다.
넷째, 동사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자;와 결합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형용사는 이러한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동사는 진행상을 표현할 수 있으나 형용사는 진행상을 표현하기 어렵다.
여섯째, 실제 사용에서 기본형 그대로 쓰이는 예가 있으면 형용사이고, 기본형이 그대로 쓰이는 일이 없으면 동사이다.

② 다음 자료로 품사를 탐구하여 보자.

- 신부가 참 젊다. 그런데 신랑은 꽤 늙었다.
-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늙는다.
- 잘 봐, 뭐가 있는지.
- 아무것도 없어.
- 우리가 본 것은 실물이 아니고 환상이었다.

• 단어들의 품사를 이야기하여 보자.

□ 젊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이 쓰이고,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려, 러’와 함께 쓰이지 못하고, 명령형과 청유형을 만들지 못한다. 또한 ‘젊고 있다’와 같은 진행상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녀는 젊다’와 같이 기본형이 실제 언어에서 쓰인다. ⇒ 형용사
□ 늙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선어말 어미에 ‘-는’과 같이 ‘-는-’이 쓰이고, ‘누가 늙으려 하겠는가?’에서처럼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와 쓰이고, 명령형과 청유형이 가능하다. 또한 진행상 표현이 어색하고, ‘늙다’만이 현실 언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 ⇒ 동사
□ 있다, 없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관형사형 어미는 ‘-는’을 취한다. ‘있다’의 경우 의도를 나타내는 ‘-려’와 결합, 명령형과 청유형이 가능하지만 ‘없다’는 불가능하다. 또 실제 언어에서 모두 기본형으로 쓰인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존재사’라는 별개의 품사로 인정하려는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는 형용사로 보고 있다.
□ 아니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 ‘-ㄴ’을 취하고, 의도와 목적의 어미 결합이 어려우며, 명령형과 청유형 활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진행상 표현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이 실제 언어에서 사용된다. ⇒ 형용사
□ 이다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관형사형 어미는 ‘-ㄴ’을 취하고 의도와 목적의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청유형과 명령형 어색하다. 또한 진행상 표현은 없고, ‘이다’가 실제 언어에서 쓰인다. ⇒ 서술격 조사로 분류하므로 동사도 형용사도 아니다.

• 품사 결정 기준과 어긋나는 것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생각하여 보자.

품사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의미, 형식, 기능’에 따라 품사를 나누게 되므로 그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성격이 더 강한가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단어 연구의 편의를 위해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문법적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동사와 형용사로 모든 용언의 품사를 분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조용언 다음의 밑줄 친 말들에서 보조 용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밝혀 보고,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여 보자.

-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 새 자정이 되었다.
- 그 편지를 누가 볼까 봐 그러니?
- 내가 그런 시시한 영화를 볼까 보냐?
- 우선 얼굴부터 보고 보자.

같은 ‘보다’라고 하더라도 본용언인 경우와 보조 용언인 경우에 그 의미가 다르고 보조 용언 중에서도 보조 동사인 경우와 보조 형용사인 경우에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

- 보조 동사 ‘보다’

①(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 『떡어 보다 /입어 보다/말을 들어 보다/꼼꼼히 따져 보다』②(동사 뒤에서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말.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른다./그런 책은 읽어 본 적이 없다./학생 중에는 불량배에게 맞아 본 아이가 많다.』③(동사 뒤에서 뒤에서 ‘-고 보니’, ‘-고 보면’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마구 때리고 보니 아무리 악인이지만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사람이란 몇십 년 살고 보면 감각이나 감성이 닳고 낡아 버려져서 아주 둔해지는 모양이다.』④(동사 뒤에서 뒤에서 ‘-다(가) 보니’, ‘-다(가) 보면’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있네./일을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서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

- 보조 형용사 ‘보다’

①(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은가/는가/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열차가 도착했나 보다./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가 보다./재채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니 감기가 들었나 보다./두 사람이 몹시 닮은 것이 부자지간인가 보다./팔자가 사나워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사는가 보다 했는데 그제 아니었다.』②(동사 뒤에서 ‘-을까 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외국으로 떠나 버릴까 보다. /한 대 때릴까 보다.』③(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을까 봐’, ‘-을까 봐서’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함을 나타내는 말. 『야단맞을까 봐 얘기도 못 꺼냈어./추울까 봐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다./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렸으나 강도일까 봐 문을 열지 않았다.』④(형용사나 ‘이다’ 뒤에서 ‘-다 보니’, ‘-고 보니’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뒷말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말. 『돌이 워낙 무겁다 보니 혼자서 들 수가 없었다./진로 문제는 중요한 일이다 보니 거듭 생각할 수밖에 없다./남편이 종이 상자 만드는 기술자이고 보니 그런 영광이 없다는 것이고...』

·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 새 자정이 되었다. - 보조 동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

· 그 편지를 누가 볼까 봐 그러니? - 보조 형용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

· 내가 그런 시시한 영화를 볼까 보냐? - 보조 형용사(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

· 우선 얼굴부터 보고 보자. - 보조 동사(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

□ 어미의 종류

다음 글에서 어미를 찾아 내어 종류별로 나누어 보자.

초등 학교 2학년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겨우 등교는 하였지만 큰비가 계속 내려 집으로 가는 다리가 끊어지고 학교는 수업을 단축할 정도였습니다. 교실에 남아 집에는 어떻게 가야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어린 동생을 업고 먼 길을 돌아서 나를 데리러 오신 엄마의 모습이 저 멀리 운동장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사랑이 아직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 줍니다.

우선 학생들이 용언은 서술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동사와 형용사와 결합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용언을 중심으로 해서 어미를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체언 다음에 결합한 경우에는 어미와 유사한 형태라도 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용언을 중심으로 어미를 찾고 그 기능을 확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중에서 본문에 있는 ‘가야할지’의 어미 분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문에는 붙여 쓰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가다’와 ‘하다’의 두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야’의 경우에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ㄴ지’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어떻게’도 문제가 된다. 사전에 따라서 이를 부사로 보기도 하고(연세한국어사전), 용언의 활용형으로 보아 사전에 실지 않은 경우(표준국어대사전)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를 따르자면 ‘어떻게’는 형용사 ‘어떻다’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게’는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아/-어, -게’ 등의 경우에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뒤에 오는 ‘가야’가 보조 동사가 아니므로 보조적 연결 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 불규칙용언 :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불규칙 활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용언은 변화하지 않는 부분과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각각 어간과 어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두루 붙어 문장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바꿔 준다고 설명한다. 이때 어간이나 어미가 불규칙한 방식으로 연결되면 그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때면 적절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우선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항상 변화하지 않는 것이 규칙 활용이고 변화를 보이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알기 쉽다. 앞에서 제시한 용례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물론 활동의 전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어간이 일부 변하는 경우에도 불규칙 활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놀다, 줄다, 갈다’와 ‘크다, 꺾다, 놀다’와 같은 용언은 활용 중에 어간의 ‘ㄹ’이나 모음 ‘-’가 사라지지만 불규칙 활용이 아니다. 우리말의 일반적인 특성상 ‘ㄹ’이나 모음 ‘-’로 끝나는 어간을 가진 용언은 활용 과정에서 ‘ㄹ’과 ‘-’가 자연스럽게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간이 변화거나 어미가 변하면 불규칙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기 않다. 앞의 설명에서 ‘불규칙한 방식’이라는 것을 바로 이처럼 탈락이 일어나더라도 그 양상이 일반적이고 규칙적이면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 **너라 불규칙 ‘-아라/-어라’와 ‘-거라’, ‘-너라’의 관계를 설명하여 보자.**

특별히 불규칙 활용 중에 ‘-거라’ 불규칙은 그 동안 ‘가다’와 같은 일부 자동사에 붙는 것으로 보아 ‘-아라/-어라’ 규칙형에 대응되는 불규칙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다’뿐만 아니라 다른 용언에서도 ‘-아라/-어라’와 ‘-거라’를 모두 취할 수 있음이 일반적인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거라’를 불규칙 활용의 예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 문법 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었다. 다만 ‘-너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오다’의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아라’라는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 이외에 ‘-거라’가 아니라 ‘-너라’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라’의 경우에는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거라/-너라’는 장년, 노년층에서나 쓰이는 세대 방언형으로 볼 수 있다.

-여 불규칙

‘하-’뒤에 오는 ‘-아/-어’가 ‘여’로 바뀜
‘하다’와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

-리 불규칙

‘-어’가 ‘-리’로 바뀜
‘이르다(至), 누르다, 푸르다’

-오 불규칙

‘달-/다-’의 명령형 어미가 ‘오’로 변함
다+오 → 다오-

-너라 불규칙

명령형으로 ‘-거라’ 대신 ‘너라’가 쓰임
‘오다’와 ‘-오다’가 붙는 용언

관형사/부사성 접두사와 관형사, 부사 다음 예를 관찰하여 관형사와 접두사의 차이점을 모둠별로 밝혀 보자.

- 새 건물(새 학교 건물), 새 제안, 새 대통령
- 새색시, 새신랑, 새사람
- 풋고추(*풋 어린 고추), 풋김치, 풋내기

일반적으로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로,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쓰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즉 관형사는 자립성과 분리성을 갖는다. 반면 접두사는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이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자립성과 분리성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관형사의 경우에도 자립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접두사의 경우에는 자립성이 없고 의존적이지만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관형사와 매우 유사하다. 예문 중에서 ‘새’에 대해 관형사와 접두사로 쓰이고 있는 점을 보면 이와 같은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접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에 포함되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접사와 어근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드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형사와 체언이 이어진 구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건물, 새 제안, 새 대통령’의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혹은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뜻을 지닌 말로 ‘새 학교 건물, 새 입시 제안, 새 여성 대통령’과 같이 새로운 요소가 삽입되어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색시, 새신랑, 새사람’에서의 ‘새-’는 ‘*새얌전한색시, 새착한신랑, 새좋은사람’과 같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풋고추, 풋김치, 풋내기’의 ‘풋-’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의 ‘풋-’은 접두사로, 자립성과 분리성이 없다.

□ 품사의 통용과 품사 고정 : 다음과 같이 쓰임에 따라 품사를 달리하는 단어들을 모둠별로 탐구하여 보자.

-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

-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어요.
-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 여기에 물건을 놓아라.
- 물건을 여기 놓아라.

• 각각의 품사를 이야기하여 보자.

-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 지시 대명사
-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 - 지시 관형사
-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어요. - 수사
-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 수관형사
- 여기에 물건을 놓아라. - 지시 대명사
- 물건을 여기 놓아라. - 지시 부사

•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보자.

‘이’에 대해서 각각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로 보는 것은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 경우에는 조사의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사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징이며, 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관형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섯’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사의 결합 여부에 의해 수사와 관형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다섯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단위성 의존 명사로 쓰인 것으로 보아 그 앞에 쓰인 단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사 결합과 관련하여 각각 지시 대명사와 지시 부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여기 놓아라’의 경우에는 조사의 결합 없이도 용언인 ‘놓아라’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부사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형태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즉 단어들 가운데에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보여 주는 경우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 전통 문법에서는 한 품사에서 다른 품사로 전성(轉聲)되는 것으로 설명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을 전성으로 처리할 때에는 기본이 되는 품사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문제가 된다. 또한 전성의 절차를 형태론적으로 형식화하기도 쉽지 않아서 문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 품사의 통용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에 속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어를 품사의 통용이 일어나는 단어라 한다. 품사 통용의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명사와 조사의 통용	(명사) 받은 만큼 준다.	/ (조사) 너만큼 크다.
(2) 명사와 관형사의 통용	(명사) 내용이 염세적이다.	/ (관형사) 염세적 소설
(3) 명사와 부사의 통용	(명사) 높이가 얼마인가?	/ (부사) 높이 날자.
(4) 명사와 감탄사의 통용	(명사) 만세를 누리다.	/ (감탄사) 만세!

- (5) 대명사와 부사의 통용 (대명사) 여기에 있습니다. / (부사) 여기 앉으세요.
- (6) 조사와 부사의 통용 (조사) 사람같이 살다. / (부사)우리와 같이 가자.
- (7) 관형사와 수사의 통용 (관형사) 둘 짝 / (수사) 둘만의 이야기
- (8) 동사와 형용사의 통용 (동사) 새싹이 날마다 크다. / (형용사) 굉장히 크다.
- (9) 부사와 감탄사의 통용 (부사) 그 사람은 아니 온다. / (감탄사) 아니! 이럴수가!

위에서 든 유형 중에서 (1), (6)의 유형은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사와 조사, 조사와 부사의 띄어쓰기 원칙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단어가 명사로 쓰였는가 아니면 조사로 쓰였는가, 또는 조사로 쓰였는가 아니면 부사로 쓰였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보자.

품사의 통용의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 앞에서 제시된 예들은 모두 그 형태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동일하다. 기능상의 일정한 차이가 발견될 뿐이어서 이를 각각의 품사로 처리하는 데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다섯 사람’이나 ‘여기 놓아라’의 경우에 각각 조사를 붙여 ‘다섯의 사람’이나 ‘여기에 놓아라’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들을 모두 각각의 품사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품사의 통용을 인정할 경우에는 형태와 기능이 일대다(一對多)로 대응되어 오히려 복잡해지므로, 이러한 기술은 언어 현상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문장에서 ‘바로’의 쓰임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 그 사람은 바로 떠났다.
-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위에서 밑줄 친 단어가 꾸며 주는 말은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보자.
의미와 형태가 같은 두 문장의 ‘바로’는 각각 수식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 첫째 문장에서 ‘바로’는 ‘떠났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에 반대 둘째 문장이 ‘바로’는 ‘그것’이라는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 ‘바로’의 품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둠별로 발표하여 보자.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의 특징이고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관형사의 특징이다. 부사의 일반적인 특징과 관형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해 가면서 모둠별로 각각의 품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바로’에 대하여 부사로 처리하고 있을 뿐, 관형사로는 보지 않고 있다. 앞에서 밝힌 품사의 통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 부사와 관형사의 특징을 비교·대조하면서 각각의 품사를 처리하도록 교사가 지도하고 나중에 사전을 통해 그 처리 방식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사전을 통해 그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그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다.
‘바로’는 부사로, ‘그 사람은 바로 떠났다.’에서와 같이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앞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바로’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관형사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부사로 인정하면서 체언 수식의 기능을 한다고 하고 있어 품사 고정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로는 ‘오직, 다만, 단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품사 처리 방법은 형태와 기능의 일대일 대응을 의미하므로 기술에 있어 간편할 수 있으나 품사의 통용과 일관성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감탄사 다음 예에 나오는 밑줄 친 말들의 품사는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자.

- 있지, 나 할 얘기가 있어.
- 실직자 수당이라든가 뭐 그런 게 충분하면 좋으련만!
- 남편이 어디 어린애가?

학생들이 이 문장에서 의미와 기능에 중점을 두고 품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형태에 주목하게 되면 ‘있다, 무엇, 어디’ 등으로 파악하여 엉뚱한 품사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왜 감탄사가 되는가는 생각하게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감탄사는 독립언이므로 문장 내의 다른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있지 :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의지 감탄사
- 뭐 : 입버릇이나 더듬거리는 의미 없는 소리의 감탄사
- 어디 :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 감탄사

□ 파생명사와 명사형(접사와 어미) 다음 자료로 단어 만들기과 문장 만들기에 대하여 더 알아보자.

-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 깊이 잠으로써 피로가 풀렸다.
- 큰 웃음을 웃었다.
-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

• 밑줄 친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보고, 각각의 품사를 밝혀 보자.
‘깊은 잠(자+ㅡ+ㅡㅁ)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의 ‘잠’은 동사 어간에 명사 파생 접사 ‘-(으)ㅁ’이 붙은 파생 명사이다. 이에 비하여 ‘깊이 잠(자+ㅡ+ㅡㅁ)으로써 피로가 풀렸다.’의 ‘잠’은 동사 어간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 동사의 명사형이 되었다. ‘큰 웃음(웃+ㅡ+ㅡ음)을 웃었다.’의 ‘웃음’은 명사 파생 접사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며, ‘크게 웃음(웃+ㅡ+ㅡ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의 ‘웃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므로 각각 명사와 동사로 그 품사가 다르다.

• 위 단어들에 붙는 ‘-(으)ㅁ’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경우 명사 파생 접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모두 ‘-(으)ㅁ’이라는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중세국어의 경우에는 대체로 명사 파생 접사로는 현대와 같은 형태가 쓰이고 명사형 전성 어미의 경우에는 ‘-음/음’이 쓰였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그 구분이 사라졌다. 그래서 형태만으로는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장에서 보면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파생 접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품사가 바뀌어 용언이 완전히 명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명사로서 기능한다. 즉 명사로서 관형사나 관형어(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경우에는 용언이 완전히 명사가 된 것이 아니라 형태 즉 외적 모습만 명사처럼 바뀐 것이므로 근본적으로는 본래 용언의 품사에 변화가 없어서 용언으로서 부사나 부사어(용언에 부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예문에서 보면 명사인 ‘잠’과 ‘웃음’은 각각 ‘깊은’과 ‘크게’이라는 관형어에 수식을 받 있고 동사인 ‘잠’과 ‘웃음’은 ‘깊이’라는 부사와 ‘크게’라는 부사어로부터 수식을 받고 있다.

□ 조사결합의 제약-명사 다음 자료를 보고 밑줄 친 단어의 성격에 대하여 더 생각하여 보자.

- 불굴(不屈)의 의지
불굴의(O), 놀라운 불굴(X), 불굴이(X), 불굴을(X), 불굴에(X)
- 사고를 미연(未然)에 방지한다.
미연에(O), 그 미연(X), 미연이(X), 미연을(X), 미연의(X)

• 이러한 단어들의 특징을 함께 이야기하여 보자.

이러한 단어들은 그 쓰임에서 조사가 결합하여 체언적 특성을 보이지만 특정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사들이 쓰이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품사로 따진다면 분명히 명사에 속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일반 명사와는 달리 조사 결합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보이는 명사에는 특히 한자어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어들은 특정한 조사와의 제약뿐만 아니라 관형어나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일이 거의 없고 일정한 어구와 늘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어서 문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한자를 포함하여 관용어와 같은 기능을 한다.

•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단어들의 예를 더 찾아 모둠별로 발표하여 보자.

이와 같이 일부의 제한된 조사만 붙는 한자어에는 ‘가관(可觀)’, ‘가망(可望)’, ‘재래(在來)’, ‘무진장(無盡藏)’, ‘불가분(不可分)’ 등이 있다. 그리고 ‘에’가 일종의 관용구를 구성하여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즉 ‘에’가 선행 형식과 공고히 결합되어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기능하는 예들에는 ‘얼떨결에, 헛갑에, 노파심에, 덕분에, 제멋에, 김에, 동시에, 단박에, 순식간에, 밖에, 외에, 줄지에, 차에, 터에, 중에, 만에, 세상에, 천만에, 하에, 반면에, 판국에, 때문에, 바람에, 탓에, 통에, 판에’ 등이 있다.

기본 용어 정리

◆ 품사

단어들을 형식, 기능, 의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하나의 항목으로 묶은 것을 품사라 한다. 언어마다 이 품사의 분류 방식과 그 유형의 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는 독립 품사로 인정하고 어미는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 준종합주의의 견해에 따라 9품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언]

일반적으로 국어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거나 일정한 상태의 대상이 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한다.

◆ 명사

주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를 명사라고 한다. 주로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문장에서 주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언에 속한다. 형태상으로는 형태의 바뀔 없이 활용이 되지 않는 불변어이다.

◆ 고유 명사

고유 명사는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대상을 이르는 명사를 말한다. 그 이름과 지시 대상이 1:1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인명, 지명 등이 대표적인 고유 명사라고 할 수 있다.

◆ 보통 명사

고유 명사를 제외하고 명사 중에서 어떤 대상을 지시함으로 해서 그 대상에 대한 독자적인 의미가 파악되는 명사를 보통 명사라 한다.

◆ 의존 명사

일반적인 명사들은 대부분 자립성을 갖는 데 비하여 자립성을 갖지 못하는 명사가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문장에서 수식을 받지 못하는 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 자립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사로 보기 어려우나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문장에서 주체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명사와 차이가 없다.

◆ 대명사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명사가 쓰일 자리에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단어 부류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대화나 글에서는 대명사가 쓰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맥락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시 대명사

대상에 대한 지시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 중에서 사물이나 처소를 나타내는 대명사를 지시 대명사라 한다. 일반적으로 지시 관형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 저’에 따라서 각각 근칭, 중칭, 원칭이라 하며 정서적, 공간적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 인칭 대명사

대상에 대한 지시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 중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쓰이는 대명사를 이르는 말로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뉘며, 3인칭은 다시 미지칭, 부정칭과 재귀 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3인칭 대명사의 경우 지시 관형사 ‘이, 그, 저’와 결합하여 각각 근칭, 중칭, 원칭을 나타낸다.

◆ 재귀 대명사

선행 체언을 도로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

◆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데에 쓰이는 단어 부류. 문법적으로는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문장에서 주체로서 기능하므로 체언의 일부에 속한다.

◆ 양수사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 고유어계 양수사는 99까지만 존재하며 이후에는 한자어계 양수사만 존재한다.

◆ 서수사

수사 중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서수사라 한다.

◆ 관계언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품사로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 조사

주로 체언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에 어떤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문법 형태소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격조사

문장에서의 특정 성분의 문법적 기능에 따라 붙은 조사를 격조사라 한다.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보격 조사, 호격 조사, 서술격 조사 등이 학교 문법엔 규정하고 있는 격조사인데 이 중에서 ‘호격 조사’가 결합한 단어는 문장에서 ‘독립어’의 기능을 하게 된다.

◆ 보조사

문장에서의 문법적 기능과 관계없이 특정 성분이 나타내는 어떤 뜻을 더하기 위해 붙은 조사를 보조사라 한다. 이러한 보조사는 여러 성분과 결합이 가능하며,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나 용언 뒤에서도 사용되며,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격조사와 차이가 있다.

◆ 용언

활용을 하는 단어라는 의미로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활용이라 한다. 우리말에서 이러한 활용을 하는 단어에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동사

어떤 동작이나 과정 등을 표현하면서 문법적으로 활용을 하는 단어를 동사라 한다. 활용에서는 형용사와 달리 평서형 어미 ‘-ㄴ다/는다’, 관형사형 어미 ‘-는’, 감탄형 어미 ‘-는구나’, 명령형 어미 ‘-어라’, 청유형 어미 ‘-자, -세’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동사는 제대로 된 문장을 형성할 경우 필요한 필수 성분 중에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그렇지 않은 동사를 자동사로 나눠 분류할 수도 있다.

◆ 형용사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형용사라고 한다.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사와 같은 용언에 속하지만 활용 양상은 동사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의 결합이 불가능하며, 평서형 어미에서는 ‘-다’, 관형사형 어미에서는 ‘-ㄴ’이나 ‘-은’이 결합한다. 또한 의지를 나타내는 ‘-ㄴ게, -려고, -고자’ 등의 어미와 결합이 어렵다는 것도 형용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형용사는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서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와 이러한 속성이나 상태를 대신하여 지시하는 지시 형용사로 나뉠 수 있다.

◆ 보조 용언

국어의 용언 중에서 자립적으로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용언에 의존하여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 한다. 우리말의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형태가 같은 것이 많아서 보조 용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용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보조 동사

보조 용언으로 쓰인 동사

◆ 보조 형용사

보조 용언으로 쓰인 형용사

◆ 본용언

국어 문장의 서술어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중에서 서술어 중 하나가 그 서술적 기능의 핵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본용언이라고 한다. 우리말에서는 본용언이 보조 용언보다 항상 앞서 위치한다.

◆ 어간

용언과 서술격 조사 따위의 활용어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요소.

◆ 어미

용언과 서술격 조사 따위의 활용어에서 어간의 뒤에 붙어 변하는 요소. 국어의 어미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로서 국어의 문법적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활용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여러 가지로 형태 바꿈을 하면서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 불규칙 활용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이나 어미 또는 어간과 어미 모두에 변화가 생기는 일반적으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다만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음운 조건에 있는 모든 용언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면 예외가 없는 것이므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규칙 활용, 형태에 변화가 생긴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 불규칙 용언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 불규칙성을 보이는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용언,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 용언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 어말 어미

용언의 활용에 쓰인 어미 중에서 한 단어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어미. 실제 용언 활용에서 반드시 어말 어미가 쓰여야 하며 어말 어미는 한 단어에서 한 번만 나타난다. 마지막에 쓰인 어말 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서 문장을 종결하는 데에 쓰이는 종결 어미, 다른 성분과 연결될 경우에 사용되는 연결 어미, 문법적 특성을 바꿔 명사나 관형사, 부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에 쓰이는 전성 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

◆ 선어말 어미

용언의 활용에 쓰인 어미 중에서 어말 어미의 앞에 위치하는 어미로 주로 높임, 시제, 서법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반드시 한 개만 사용되어야 하는 어말 어미와 달리 선어말 어미는 여러 개의 어미가 한꺼번에 사용될 수도 있고,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종결 어미

용언의 활용에서 어말 어미로 쓰인 어미 중 문장의 종결을 위해 단어 제일 마지막에 결합한 어미를 말한다. 종결되는 문

장의 유형에 따라 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로 분류될 수 있다.

◆ 대등적 연결 어미

문장과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경우 앞 문장의 서술어로 쓰인 용언의 끝에 쓰인 어말 어미를 말한다.

◆ 종속적 연결 어미

문장과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경우 종속적 의미를 갖는 문장의 서술어로 쓰인 용언의 끝에 쓰인 어말 어미를 말한다.

◆ 보조적 연결 어미

한 문장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에 있는 서술어에서 선행하는 본용언의 끝에 사용되어 보조 용언과 이어지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어말 어미를 말한다.

◆ 전성 어미

일반적으로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기능 이외에 용언이 명사나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또는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형태를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어말 어미를 말한다. 그 기능에 따라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를 전성 어미로 학교 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 수식언

문장에서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품사로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해당한다. 주로 이러한 수식언은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한다.

◆ 관형사

체언과 체언형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품사로 형태상 활용이 되지 않는 불변어이어서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지 못한다. 후행하는 성분을 수식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는 파생어의 접두사와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관형사의 의미에 따라서 뒤에 오는 성분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 지시하는 대상이 있는 지시 관형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수 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다.

◆ 부사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기능을 담당하는 품사로 어미가 결합하지는 못하지만 보조사는 결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후행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후행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성분 부사는 의미 기능에 따라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로 나뉘며, 문장 부사의 경우에는 양태 부사와 접속 부사로 나눌 수 있다.

◆ 의성 부사

성상 부사 중에서 사물이 내는 소리를 흉내 내는 부사.

◆ 의태 부사

성상 부사 중에서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 독립언

품사 중 다른 품사와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기능하는 품사. 우리말의 감탄사가 독립언에 해당한다.

◆ 감탄사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어, 화자의 대답을 나타내는 응답어, 대상을 부르는 호칭어, 기타 군말 따위를 총칭하는 품사.